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제906호

속도내는 통일금융, 일선에선 삐걱

금융위, TF 구성 정책과제 체계적인 정리·연구 나서
기부범위 등 구체적 사안 미정…은행, 상품개발 난항

통일금융이 초기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설치되기는 했지만 실무자들은 업무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방향성을 잡아주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정책과제의 체계적 연구에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통일금융 TF를 구성해 주요 체제 이행국의 사례를 토대로 통일 속 금융회사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연구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TF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민간연구기관, 정책금융기관, 기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달 중 첫 회의를 개최해 약 3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위가 통일금융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통일금융 연구와 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가 관련 부서를 설치했지만 연구 내용은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다. 북한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통일 이후 취할 원조 및 경제전략을 연구한다. 데이터베이스(Data Base)될 자료가 한정되다 보니 연구조사 결과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은행권 상품 개발자들도 고민이 크다. 저금리 기조 속에 통일이란 대의적 가치만으로는 고객을 유인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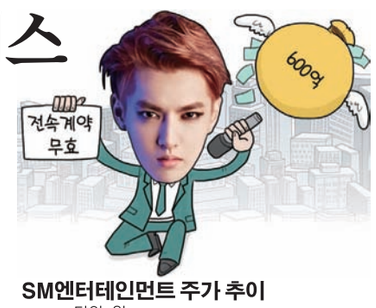
실제 은행권 '1호 통일 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우리은행의 '우리겨레 통일 예적금(가칭)'상품 출시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달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금리 수준 및 대북지원 사업 기부범위 등 구체적 사안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한 마디에 통일금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연구원들은 자신이 무엇을 연구하고, 어디서 데이터를 얻어야 하는지 난감해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큰 방향성만 잡아준다면 일선에서도 체계적 연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SM 시총 600억 날린 엑소 멤버 크리스

전속계약 무효소송 제기 악재
매물 대거 쏟아지며 주가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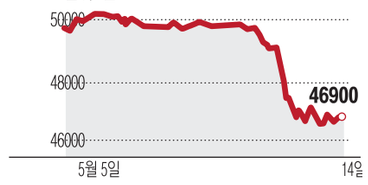
엑소(EXO)의 크리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SM) 시가총액 600억원을 허공에 날려 보냈다. 크리스는 15일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증시 전문가들은 SM의 고질적 문제인 멤버 이탈 이슈가 또다시 제기된 만큼 당분간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SM 주가는 5.82% 떨어져 4만6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조원이 넘었던 시가총액은 9000억원대로 주저앉았다. 크리스 전속계약 무효소송 악재가 600억원을 날려 버린 것이다. 특히 기관투자가는 이날 하루에만 27만8000주를 내다팔며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크리스는 15일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인 활동 제약과 SM과의 의견 불일치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엑소는 지난 7일 새 미니앨범 '중독'을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에 들어갔다. 대규모 콘서트도 앞두고 있다. 엑소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국내 콘서트를 갖고, 다음달 1일부터 홍콩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콘서트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추이
단위: 원



이처럼 대규모 콘서트 등 엑소의 본격적 활동을 앞두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져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주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SM 측으로서는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그동안 엑소의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이수만 회장이 에스엠 지분 21.27%를 보유 중인 가운데 국민연금(10.04%), FIDELITY FUNDS(9.52%), 트러스톤자산운용(6.41%) 등도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정 기자 lmj@

신흥국 리스크 불똥 튈라 정부, 경기위축 우려 긴장

中 경기부진·태국 정정불안 여파
석유·철강·기계 수출 타격 불가피

중국 경기둔화, 태국 정정불안 등 신흥국 리스크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석유제품·철강·기계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신흥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이들 국가의 위기가 본격화할 경우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외 투자국인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신고기준)은 8억1000만 달러로 1년 전(9억1000만 달러)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11%) 했다. 아시아 신흥국인 브릭스(BRICs) 중 인도와 러시아에 대한 투자도 각각 5.3%, 6.2%씩 줄었다. 중동의 경우는 24.9%나 뚝 떨어졌다. 투자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해외투자 규모를 사전 신고한 금액이 아닌 투자자가 국외로 실제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대(對)중국 투자액은 29.9% 급감했다.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중국의 경기부진, 우크라이나·태국의 정정불안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까닭이다.

중국의 소비·투자 등 주요 경기지표 부진으로 저성장 우려가 고조되면서 당장 대(對)중국 수출 증가율도 눈에 띄게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한달간(1~20일 잠정치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75억8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줄었다. 올 1~4월 대(對)중국 수출은 420억51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같은 기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철강부문의 경우 역시 미국·일본 등 선진국 중심의 수출물량 확대에 힘입어 16.8%나 늘었지만 중동(-28.4%)·중남미(-14.6%)·아세안(-7.2%) 등 신흥국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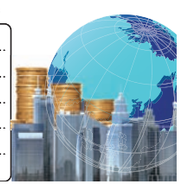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흥국 금융 불안이 해당국의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경우 실물경로를 통한 충격의 전이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신흥국 리스크로 인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들어 수출이 매월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상황이지만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여전히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대외부문 성장동력과 위험요인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1분기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신고기준	송금기준
전체	▼0.2	23.2
아시아	4.7	▼21.3
중국	▼11.0	▼29.9
인도	▼5.3	61.7
브라질	66.9	▼22.8
러시아	▼6.2	▼39.4



때이른 더위 냉방가전 수요 신바람



연일 25도를 넘나드는 때이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선풍기, 에어컨 등 여름 냉방가전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용산점에서 매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에어컨을 둘러보고 있다. 한 가전대형마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선풍기 판매량은 80%, 에어컨 판매량도 20%가량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이통3사 "뚫어라" 영업재개 D-4 정부 "막아라"

보조금·저가폰 등 마케팅 전략 수싸움…당국, 시장과열 막기 제도마련 분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동시 영업재개를 앞두고 정부가 시장과열을 막기 위한 제재 장치를 내놨다.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 나서는 업계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정부 대응 행태와 그에 따른 논란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으로 인한 이동통신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은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제도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폐지도 검토 중이다. 기존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가 단말기에 한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처벌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시켰다. 그동안 방통위는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었을 뿐 제재 권한은 미래부에 있어 사업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이통업계는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는 대신 저가폰 전략으로 가입자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지난달 27일 단독영업에 돌입한 KT다. KT는 단말기 구매비용 부담을 낮춘 '저가폰 전략'을 통해 9일간 확보한 가입자가 전체 번호이동 고객 중 43%에 달했다. 저가폰에는 출고가 인하와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가 포함되며 라인업도 1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KT 전용폰인 갤럭시S4 미니와 옵티머스GK 가격은 기존 출고가(55만원)의 절반인 25만9600원으로 정부가 정한 한도(27만원)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사실상 공짜다.

단독영업 기간 이동통신 3사 성적표

회사명	SK	U+	kt
단독 영업기간	3월13일~ 4월4일	4월 5일~ 4월 26일	4월27일~ 5월18일
전체 고객 유치(명)	약 14만	약 18만	약 15만3000 (4월27일~5월9일)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및 각 사 취합

오는 20일 영업을 재개하는 SK텔레콤도 저가폰 전략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출시된 팬택 베가아이언2, 소니 엑스페리아 Z2 등의 출고가가 70만원대로 낮아졌으며, 갤럭시 노트3, LG G프로2 등 기존 제품들의 출고가 인하도 기대되고 있다. 또 LG G3 등 고사양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이폰5S, 갤럭시S5 프리미엄 버전 출시도 예상되고 있어 다양한 단말기 라인업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유미·김범근 기자 jscs508@

숫자로 본 NEWS

한국인 기대수명
여성: 84.6세 남성: 78세
(세계평균 여성: 73세 남성: 68세)

기대수명이 긴 국가
남 아이슬란드: 81세
스위스: 80.7세
호주: 80.5세
여 일본: 87세
스페인, 스위스, 싱가포르: 85.1세
이탈리아: 85세
(2012년 출생 기준)
※ 출처: WHO '세계보건통계 2014'



애플 특허소송 피소
59건

2위 아마존(50건)
3위 AT&T(45건)
4위 구글(39건)
5위 델(38건)
HTC(38건)
삼성(38건)
6위 마이크로소프트(35건)
7위 LG, HP(34건)



한국인 기대수명 81세

한국의 기대수명이 최근 20여년간 전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세계보건통계'에서 지난 2012년 태어난 한국 유아의 기대수명은 81세로 지난 1990년 출생자의 기대수명보다 9.2세 연장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84.6세로 세계 8위를 차지했다. 남성은 78세로 집계됐다. 이는 1990년의 여성 76세, 남성 68세에서 각각 9년, 10년 늘어난 수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특허피소 1위 '고달픈 애플'

애플이 지난해 특허 관련 피소 1위 기업에 올랐다고 포춘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허분석업체 렉스머시나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특허와 관련해 59건의 새로운 소송을 당했다고 포춘은 전했다.

삼성전자는 38건으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2위는 아마존(50)이 차지했으며 AT&T(45), 구글(39), 델(38), HTC(38), 마이크로소프트(35), LG(34), HP(34)가 뒤를 이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Star 금요섹션 17~23면

커버스토리
방송 주름잡는 외국인들

조성철 사장 ▶2
권오준 회장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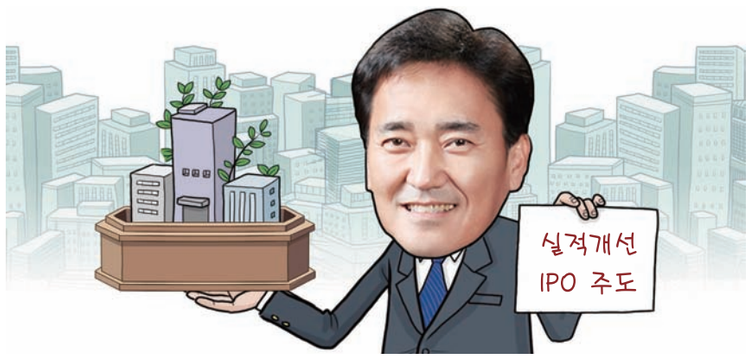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월급쟁이 사장서 주요주주 된 조성철

〈제로투세븐 사장〉

48만주 스톡옵션 행사 지분율 3.99%…27만주 남아

평가이익 30억…2008년 입사 후 실적개선·IPO 주도



유·아동 전문기업 제로투세븐의 조성철 사장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경영관리·재무 전문가인 조 사장은 김정민 제로투세븐 회장이 사업영역 확대, 중국 시장 공략 등 공격적 경영전략으로 외형 확대를 주도하는 사이 조직 내부의 질적 성장을 주도해 기업 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15일 48만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해 3.99% 지분율을 보유한 주요 주주에 올라섰다. 스톡옵션 행사가는 3300원으로, 행사 당일 종가가 9610원인 점을 감안하면 30억원가량의 평가이익이 기대된다. 제로투세븐은 지난 2009년 6월 조 사장에게 75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스톡옵션 행사는 오는 6월 8일까지로, 현재 27만주가 남아 있다.

제로투세븐은 매일유업의 자회사로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 동생인 김정민 회장이 이끌고 있다. 현재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유·아동복 시장에 주목,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김 회장이 글로벌 사업에 집중하는 동안 조 사장이 국내 사업의 내실을 강화한다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알로앤루, 알퐁소, 포래즈 등을 보유한 의류부문이 50.3%, 유통 39.1%, 중국부문이 10.6%를 각각 차지한다.

글로벌 광고회사인 그레이월드와이드 최고재무책임자와 태원엔터테인먼트 CFO 등을 거쳐 2008년 제로투세븐에 입사한 조 사장은 △ERP(전사적 자원관리) 구축 등의 비즈니스프로세스 개선 △임직원 소통 강화 △의사결정 프로세스 단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작년 10월 전무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부 승진했다.

특히 작년 회사의 공개상장(IPO)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와 함께 내수시장 온라인 매출 비중 증가에 주목, 제로투세븐 닷컴몰을 통한 판매 채널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온라인 매출은 2012년 12.7%에서 2013년 18.0%로 상승했다.

조 사장의 이 같은 내실 다지기에 힘입어 제로투세븐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결기준 매출액이 연평균 20%씩 성장했다. 다만 국내 의류 및 유통부문 부진, 해외직구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내 유·아동 의류산업의 성장성 정체로 인해 지난해 실적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401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60% 감소한 48억원, 순이익은 56% 감소한 37억원을 기록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1분기 '연봉 킹' 신종균 96억… 금융권선 서진원 26억

〈삼성전자 사장〉 〈신한은행장〉

신 사장, 지난해 성과에 따른 상여금 90억 포함

정몽구 회장 계열사 3곳서 28억 "총수 중 최고"



신종균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 사장이 올 1분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중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금융권에서는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각각 최고액을 수령했다. 두둑한 퇴직금을 챙긴 전직 최고경영자(CEO)로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김우진 전 LIG손해보험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대기업 상장사 기준 올 1분기 신종균 사장은 올해 1~3월 급여 4억3200만원, 상여금 1억4400만원, 기타 근로소득 90억8800만원 등 총 96억6400만원을 받았다. 신 사장은 한 분기 만에 지난해 연봉 62억1300만원보다 30억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하루에 1억원가량 벌어들인 셈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표이사(등기임원)의 경우 1분기에 지난해 성과를 반영한 보수를 받는다"며 "지난해 좋은 실적을 낸 데 따른 상여금이 (신 사장의) 기타 근로소득으로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IM부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전체 36조7900억원 가운데 67.8%(24조9600억원)를 차지했다. 올 1분기에도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8조4900억원 중 6조4300억원으로 76%를 차지했다.

정몽구 회장은 올 1분기 현대차 12억원, 현대모비스 9억원, 현대제철 7억4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총 28억4000만원을 받아 재계 총수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손에 쥐었다. 이어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지주회사인 LG에서 급여 8억1000만원, 상여금 9억5000만원 등 총 17억6000만원을 받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10억6350억원, 한국공항 7억7340만원 등 총 18억369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서는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가장 많은 26억9100만원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장기성과급 21억여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은 1분기에 총 16억5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급여 1억7500만원과 상여금 8억9600만원, 이연지급보상 5억3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 행장은 지난해 28억원을 보수로 받아 금융권에서 연봉 킹에 등극한 바 있다. 이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같은 기간 8억41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6억3200만원을 수령했다. 금융권에서 가장 적은 연봉을 받은 수장은 이순우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에선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 급여 3억825만원, 상여금 3억1590만원, 장기근속포상금 등을 포함해 총 6억24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전직 최고경영자(CEO) 중에서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39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우진 전 LIG손해보험 부회장이 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장효진·안철우 기자 js62@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WTO의 현 위상과 역할: 글로벌 경제에서의 다자무역체제' 특별강연회에서 질의에 응하고 있다. 뉴시스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

"한국 DDA협상 중추 멤버"

〈도하개발어젠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방한 둘째 날인 16일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 나섰다.

아제베두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무역환경 변화와 WTO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중요성을 거듭 설파했다.

"농업·금융·통신 등 다자간 협상 필요"

그는 "DDA는 자유무역주의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라면서 농업, 금융, 통신 등 당양한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제베두 총장의 이번 방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총장은 전날부터 서울대 강연과 국회의장 예방 등 1박2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남미 출신의 첫 WTO 사무총장인 그는 20여년간 브라질 직업 외교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9월 취임했다. 세계경제가 성장하는 데 무역 확대가 필수라는 인식 아래 지난 2001년 11월 시작돼 2008년 합의 직전 무산된 후 사실상 논의가 멈춘 DDA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DDA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타협안 '발리 패키지'를 지난해 12월 타결시킨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발리 패키지엔 관료주의적 무역장벽을 낮추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제베두 총장은 전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WTO의 현 위상과 역할 : 글로벌 경제에서의 다자무역 체제' 주제의 강연에서도 DD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 금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DDA의 논의를 다시 시작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발리 패키지를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농업, 서비스, 산업제품 등 세 가지 분야를 DDA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목표"라며 "최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드러냈다. 그는 잇달아 가진 강연에서 거듭 세월호 침몰 사고를 언급,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또한 DDA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국은 협상 타결에 매우 중요한 멤버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다"며 "빠른 경제성장으로 많은 개도국에 영감을 준 한국이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I'Lavita
일'라비타
ITALIAN LIFESTYLE CONCEPT STORE
OPEN 2014.02.28(FRI)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HYUNDAI DEPARTMENT STORE
MAIN STORE · B2F · 02)547-2233

금융사 대출 3747억 '돈잔치'…신협은 유씨 일가 '私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세월호 참사 금감원, 청해진 관계사 금융검사 중간발표

3300만 달러 불법 외화유출 사실도
거래내역 은폐·분식회계 '비리백화점'
신협선 이유없이 일가에 66억 송금
여신심사·운전자금 한도 부실 운영
금융사 부당행위 강력 제재 조치
"잘못된 금융관행 개선책 마련할 것"



검찰이 16일 오전 10시까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출석요구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오전 유 전 회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인천지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일가가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자금을 동원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은폐한데 이어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금액이 총 37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들은 대출심사와 운전자금 한도 등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사 3747억 대출… 여신심사 허술 =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청해진해운 관련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에 대한 42개 금융사의 총여신액은 374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금융사 여신이 있는 46개 관계사에 대한 총여신액은 3365억원이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는 총 70개로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천해지(42.8%)를, 천해지가 청해진해운(39.4%) 등을 지배하며 금융사 여신이 있는 관계사는 46개사였다. 유병언 일가와 측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관계인은 총 186명으로 이 중 금융사 여신이 있는 관계인은 총 90명이었다.

이번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여신심사를 허술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주)트라이곤코리아 등에 대해 채무상환 지원임을 알면서도 자금용도 심사를 생략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의 경우 담보가를 평가할 수 없는 교회건물임에도 담보를 취득했다.

운전자금 한도도 부실하게 운영했다. 운전자금한도 산정 예외적용대상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속적으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해 취급했으며 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한도제도 적용을 사실상 배제하거나 중소기업 대출 취급시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자금 용도가 적절하지 않거나 부실한 여신에 대해서는 조기 회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절차 등을 거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병언 일가 신협 사금고로 악용 = 이번 검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외화유출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은폐하고 자산가격을 부풀리는 등 회계분식 혐의도 밝혀졌다.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위무 위반(270만 달러), 투자관계 종료 이후 청산보고서 미제출(130만 달러) 등 총 16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1000만 달러가 넘는다.

또 33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외화유출 혐의 사실도 드러났다.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지분을 제3자에게 무상양도하거나 헐값 처분하는 등 총 760만 달러의 투자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천해지 등 관계사가 유병언씨가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병언씨의 사진작품 매입과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총 2570만 달러를 송금하기도 했다. 이밖에 특수 관계자와 거래내역을 은폐하거나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 등 회계분식 혐의도 적발됐다.

아울러 신협을 사금고로 악용해 대규모 부당자금거래를 한 현황도 드러났다. A신협은 2006~2012년 동안 유병언 일가 4명(유병언, 유대균, 유혁기, 유상나)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원을 송금했다. 또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들이 신협대출 등으로 총 727억원을 마련해 다른 관계사에 총 514억원을 지원했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자금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금융권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관행 및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청해진해운 관계사·관계인 금융회사 여신 현황



금감원, 청해진해운 관련 특검 발표

1. 청해진해운 관계사 총 70개사, 관계인 186명
2. 42개 금융사, 총 여신액 3747억원
3. 부실한 대출심사 및 담보 취득
4. 불법 외환 유출 혐의(**4300만달러**)
5. 외국환거래법규 위반(**16건**)
6.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은폐(**168억원**)
7. 회계분식 및 종업원 동원 자금 조성(**320억원**)

관계인 90여명 자금흐름 파악하고 부당 내부거래 조사까지

금감원 '돈줄 죄기' 칼날 세웠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측 인물과 관계사의 자금 흐름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간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유병언 전 회장측 인물에 대한 자금 흐름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유병언 전 회장의 관계사와 연루가 돼 있는 인물 90여명에 대한 자금흐름을 파악한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관계사들의 회계장부뿐만 아니라 개인을 통한 제3자 담보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내역까지 조사를 벌여 확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금감원이 여신검사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계사 간 부당 내부거래 행위까지 조사를 실시했다는 부분도 눈길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사들이 금융권 자금을 끌어들여 다른 관계사를 지원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이 유병언 전 회장측 자금 흐름과 관계사간 거래 내역까지 미리 파악해 신속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저인망식 조사를 벌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유병언 전 회장 측 인물과 관계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돈줄 죄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금융권 자금이 제3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유병언 전 회장측에게 유입 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유 전 회장측 인물 등의 자금거래까지 포함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금감원은 검찰과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美 국세청도 유병언 일가 자체 조사

"차남 혁기씨 미국서 탈세 가능성"
소재지 파악…신병확보 빨라질 듯

미국 국세청(IRS) 산하 범죄수사국이 15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범죄수사국은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가 미국에 세워진 구원파 교회 헌금을 사업 용도로 유용했다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이미 혁기씨의 미국 내 소재지를 파악한 상태"라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수사국은 혁기씨가 미국에서 8개 사업체와 종교기관을 운영하며 탈세와 돈세탁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혁기씨는 세모그룹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주주이며 관계사인 문진미디어, 사진전시업체 프레스프랑스 대표도 겸하고 있다. 범죄수사국은 이들 기업에서 얻은 수입을 혁기씨가 IRS에 신고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혁기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이런 수입에 대해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탈세가 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체류 중인 유씨 일가와 측근의 신병확보를 위해 미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과는 별개로 IRS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향후 전개 방향이 주목된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은 혁기씨와 유 전 회장 장녀 섬나씨 등에게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다. 이들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등 강제소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혁기씨가 해외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환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IRS의 자체 조사가 혁기씨를 압박해 신병 확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이주영·김석균 없는 '세월호 현안보고'

〈해수부 장관〉 〈해경 청장〉

농해수위 오늘 첫 진상조사
"실종자 수색" 이유로 불참
질의없는 진행… 사실상 파행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현안보고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불참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첫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이 불참한 가운데 질의 없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파행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임위 추진 시기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한 달째인 이날 농해수위는 당초 예상됐던 현안보고 대신 의사진행 방식으로 다음 현안보고 일정을 논의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당초 이번 사건의 가장 중대한 핵심관계자인 이 장관과 김 청장을 국회로 불러 사고 당시 경위와 부실대응 등을 추궁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이 사고 현장 실종자 수색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된 것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핵심 관계자인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나란히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의 맥이 빠진 모양새가 됐다"면서 "결국 의사진행으로 하고 다음 농해수위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선조치 이후 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장과 야당은 현재 무리하게 상임위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해수위 차원의 대국민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사건 한 달이 지난 만큼 이제는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수부·해경의 안전불감증 △산하기관과 유착관계, 안이한 사고전파 과정 △초동대처 실패, 구조실패, 매뉴얼 미흡 등의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영록 의원은 전날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과 해경청장이 현장에서 결정하고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안 나오면 진실을 알 수 없다"면서 "자료를 요구해도 답변조차 안 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구조 및 수색에 집중하라는 차원에서 두 번이나 연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와서 안 나오겠다는 것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양당이 합의가 된 마당에 안 나온다고 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일정에 합의하며 형성된 양당의 화해 기류가 이 같은 각론에서의 이견에 따라 갈등 국면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野 "참사 관련 장관 전원 출석"… 與 "필요 증인만"

19일부터 5월 임시국회 열려
조사위 구성·범위·방법 등 이견
세월호 국조 6월로 넘어갈 듯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5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제외하면 국정조사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일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5월 임시국회 개최 방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우선 20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실시된다.

긴급 현안 질의엔 국무총리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 해경청장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대거 출석한다. 여야는 이들을 상대로 참사의 원인과 사고 수습 문제점, 유가족·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 정부의 안전대책 등을 두루 추궁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27일부터 열리는 세월호 국정조사다. 여야는 20일 국회에 여야 공동 명의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범위·방법·기간 등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조계획서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본격적 조사 시기 대상, 활동 범위 등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경우 일러야 6월에나 본격적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대통령 보고와 사고수습을 위한 청와대의 지휘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의 대거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고의로 시간을 지체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특검과 6월 국정감사에 대한 논의는 일단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로 미뤄졌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국조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왜곡됐을 때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우선 국조에 임하면서 추이를 살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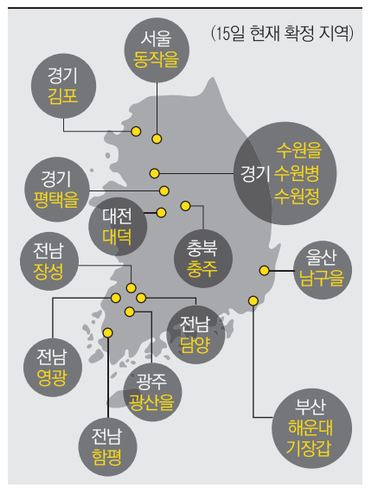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도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상당한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 문제는 아직 협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의도 19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후 국정조사 요구서가 상정되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의중 기자 zerg@

최대 16곳… 거물급 정치인 출마 가능성

7·30재보선 '미니 총선' 되나

與野당내 권력구도 변화 불가피



7·30 재보궐선거 지역이 최대 16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미니 총선 격으로, 거물급 정치인의 대거 출마 가능성도 있어 결과에 따라 후반기 국회와 각 당의 권력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 경기 수원을 등 2곳. 여기에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이 10명에 이른다.

선거일 한 달 전까지만 궐석이 확정되면 재보선 지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모두 재보선 대상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서울 동작을), 남경필(경기 수원병), 유정복(경기 김포), 서병수(부산 해운대·기장갑), 박성효(대전 대덕), 김기현(울산 남구을), 윤진식(충북 충주) 의원이 사직서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진표(경기 수원정), 이낙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무소속으로는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해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의원직을 던졌다.

이에 따라 최소 12곳이 이번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새정치연합 배기운(전남 나주),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 등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 재보선 지역은 최대 16곳에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을 통해 거물급 정치인들이 복귀하면 각 당내 권력지형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에선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황식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이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과 천정배 전 법무장관,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임종석 전 의원과 안철수 공동대표의 최측근인 금태섭 대변인, 박용진 홍보위원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김의중 기자 zerg@

KDI "통일대비 전략적 남북경협 추진"

통일을 대비해 전략적 차원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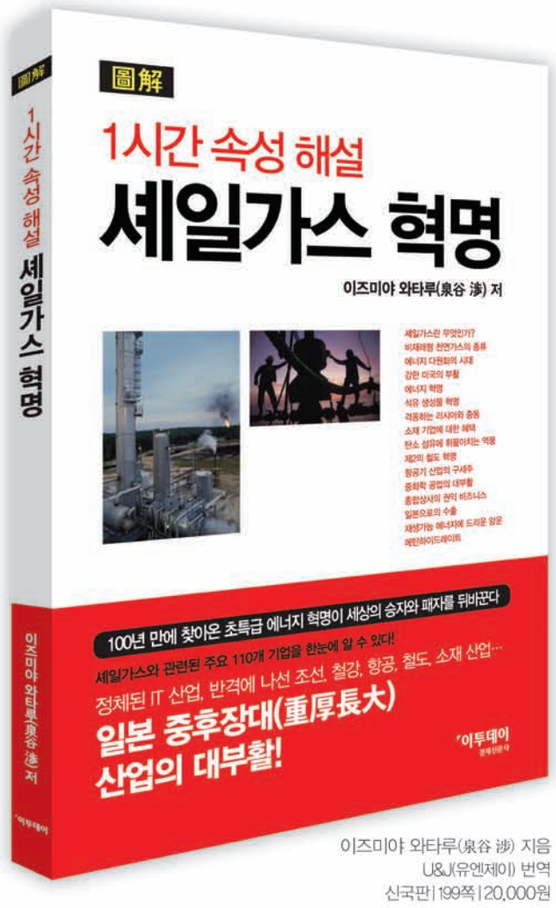
KDI 이석 연구위원은 15일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존에 추진해 온 경제협력 외에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의 '전략적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상업적 또는 남북관계 관리 목적의 경협은 정치, 군사적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통일 대비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가 목적인 남북경협은 위의 경협들과 개념적으로 상이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북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전제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개발 지원이 더 수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통일 대비 경협은 우리의 정책적 입지와 유연성을 크게 확장시켜 전반적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 · 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환율 1000원땐 영업이익률 0.8%P↓"

〈원·달러〉 〈제조업〉

우리금융경영硏 보고서

전기·전자 2.1%P, 조선 5%P 하락
영업이익은 13조3000억 감소할 듯
환위험 대응 미흡 中企 타격 불가피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하락하면 수출 비중이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4.9%를 기록하고 영업이익도 13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원화 강세로 인한 타격은 기업 규모별로 양극화 현상을 띨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16일 발표한 '원·달러 환율 하락이 제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하락할 경우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3년(평균 환율 1095원) 5.7%에서 0.8%포인트 하락한 4.9%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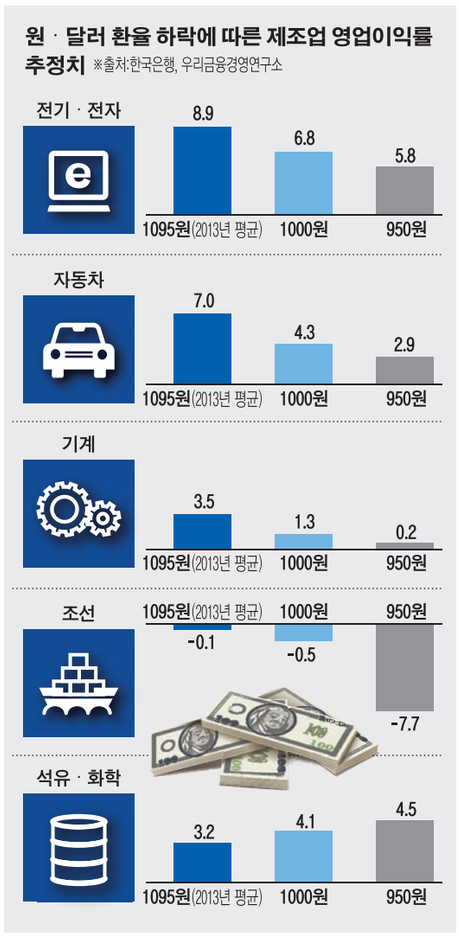
특히 전기·전자(2.1%포인트↓), 자동차(2.7%포인트↓), 기계(2.2%포인트↓), 조선(5.0%포인트↓) 등 주요 수출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 하락폭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해외로부터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석유·화학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하락할 경우 제조업 전체의 영업이익은 2013년에 비해 13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분야별로 보면 마찬가지로 수출비중이 높은 전기·전자(-9조2000억원), 자동차(-6조3000억원), 조선(-4조4000억원)의 영업이익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와 달리 석유·화학은 원유 수입단가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3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타격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 비중이 높으며, 결제통화 다변화와 환헤지 등 환위험 관리 덕분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축소됐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낮고 환위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기업별로 보면 현대·기아차의 해외생산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54.8%로 절반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피처폰·스마트폰·태플릿PC의 92.4%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달러화 외에도 엔화, 유로화, 루블화, 위안화 등 결제통화를 다변화하고 있고 LG전자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싱가포르 등에 해외 금융센터를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은 환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환위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정보부족, 키코 사태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비용 부담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손익분기점은 1050~1070원대로 현재 환율 수준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하회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1020원대까지 급락해 향후 세 자릿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세월호 여파… 원전 안전 '도마위'

고리·월성 재연장 반발 거세
부산시장후보 일제히"패쇄"

세월호 사고 이후 국정 이슈가 안전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이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재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사회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리 1호기는 가동한 지 20년이 지나서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고 2008년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6년째 가동 중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핵연료가 들어 있는 2009년 압력관을 교체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10년 수명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중 고리 1호기의 경우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모두 고리1호기의 폐쇄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다.

세부적으로는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수명이 연장된 2017년까지 폐쇄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가 즉각 폐쇄를,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안전진단 후 문제시 즉각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부산시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관여할 권한은 없지만 지역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재연장 신청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곤란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만료로 1년 6개월째 멈춰 서 있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 또한 난항이다. 당초 지난해 모든 검증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겼고,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일정을 고려할 경우 올해 안에도 결정이 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면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는 어느 쪽이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수명 연장이 결정되면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일 수 있고, 원자로를 폐쇄하면 해체비용 6000억원보다 많은 7000억원을 들여 안전 보수를 실시한 한수원의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한수원은 설계수명에 대해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명을 빌려 경제적, 독점금지를 고려한 기간으로 기술적 제한 기간은 아니라며 적극 해명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3월 말 기준 100기의 가동원전 중 키와니원전, ANO 1호기 등 72기가 60년의 계속운전을 승인받아 이 중 24기가 계속운전 중에 있으며, 향후 80년까지 계속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한은 금융협의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해 시중 은행장들과 환담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기초생활 수급 노인, 기초연금 혜택 없어"

노인 40만명 생계급여서 20만원 삭감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하위소득 70% 노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최저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 당해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제소득으로 여겨져 생계급여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0만원가량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으로 늘어나더라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받는 돈이 없게 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약 40만명 정도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해도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들 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양육수당을 받더라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며 "기초연금도 (양육수당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해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의 '가처분소득'(생계급여+기초연금)이 차상위계층보다 더 많아지게 돼 이들을 분리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기초수급자는 계속 수급 상태에 남으려고 하고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되려고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지난달 주택거래 9만2691건… 작년보다 16% 증가

주택거래량이 4월 중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늘며 넉 달 연속 증가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4월 주택 매매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는 9만2691건으로 작년 4월보다 16.6%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2009~2013년) 평균에 비해서도 21.0%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 주택거래 증감률은 올해 들어 △1월 117.4% △2월 66.6% △3월 34.2% △4월 16.6% 등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월별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만3002건)에서 거래량이 29.2% 증가해 지방(4만9689건)의 7.5% 증가폭보다 컸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전체(1만3689건)가 31.1% 증가한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1870건)의 증가폭은 3.8%에 그치는 등 차이가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6만4536건)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4% 증가했고 단독·다가구(1만1908건)는 13.5%, 연립·다세대(1만6247건) 19.7% 각각 증가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지난해 1조4400억 적자 더 커지나… ·인력 구조조정 논란도…

내년 1월 출범 '통합산은' 산 넘어 산

내주 합병위원회 설립
건전성 모니터링 진행
정금공쪽 의견도 수렴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과 상업투자은행(CIB) 발전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통합산은'이 이견 조율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통합산은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다음주 중 정찬우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병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합병대상 3개 기관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통합 실무작업 및 합병위원회 지원을 위해 산은과 산은지주, 정금공에도 각각 통합추진단도 설치된다. 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이 완료되면 금융위는 오는 11월 초까지 실사를 마치고 합병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정책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통합산은의 비전 및 업무방향과 통합 이후 조직 운영방안도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11월까지 정금공의 대외 정책금융 업무를 수은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이관 범위 및 시기는 합병위원회가 수은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은 민영화 계획은 중단부터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까지 힘겹게 8부 능선을 넘었지만 통합산은이 출범되기까지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산은 성적표다. 산은은 STX 대기업 구조조정 여파에 지난해 1조4400억원의 적자를 냈다. 13년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산은이 출범하면 정금공 부채까지 더해져 매년 5000억~6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이 발생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는 두 기관이 통합되더라도 산은의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통합시 산은의 BIS비율 축소는 0.5%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올해도 대기업 구조조정이 남아있어 산은의 산은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꾸준히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 역시 같은 생각이다. 홍 회장은 올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정책금융공사의 이자부담이 6000억원인데 이 부담을 자회사인 산은지주의 배당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통합해도 실제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산정돼 달라진다"며 "IFRS로 하면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가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어 산은보다 오히려 BIS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통합 과정에서의 인력 구조조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흡수통합 당사자인 정금공 직원들의 불안이 가장 크다.

우선 금융위는 합병위원회 및 통합추진단에 산은지주·산은과 정금공을 동일한 규모로 포함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공정히 수렴키로 했다. 특히 합병위원회 개최시 정금공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은 별도 안건에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직원간 대화, 워크숍 등 화학적 결합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농협금융 1분기 순익 30억 그쳐

작년 1770억서 98% 감소
SC금융지주는 적자 전환

농협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3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한국SC금융지주의 실적은 적자로 돌아섰다.

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30억3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70억원의 순익을 냈던 것에 비하면 98.3%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순이자마진(NIM)의 하락과 더불어 STX그룹 관련 출자전환 주식 손상차손(1192억원)과 대손충당금(1034억원) 추가 적립에 따른 비용 증가가 기인했다.

농협은행은 350억원의 당기순손실으로 적자전환 됐다. 농협은행의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932억원이었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각각 232억원, 1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농협증권과 NH-CA자산운용, 농협캐피탈, 농협선물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68억원, 32억원, 33억원, 1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협금융 계열사들은 올해 1분기 총 815억원의 명칭사용료를 납부했다.

한국SC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351억원 적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주요 자회사인 SC은행은 1분기에 반영된 일회성 특별퇴직프로그램 비용(약 340억원)의 영향으로 28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SC금융그룹 연결총자산은 62조9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77% 감소했다.

한국씨티은행은 1분기 3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동기 대비 36.9% 감소한 것이며, 전분기와 비교해 51.3% 줄어든 수치다.

씨티은행은 이자부자산 규모가 줄고 투자·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외환파생 관련 이익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은행 수익의 핵심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2.77%로 지난해 1분기 대비 0.09% 포인트 떨어졌고, 전 분기보다는 0.04%포인트 올랐다.

안철우 기자 acw@

아주캐피탈 1분기 당기순익 98억

아주캐피탈은 올해 1분기 동안 영업수익 2013억원을 올려 9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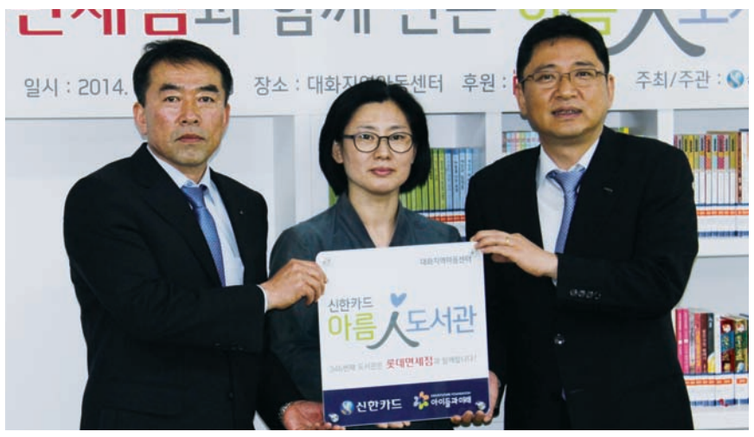
16일 공시자료에 따르면 아주캐피탈은 올해 1분기 98억1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2억5000만원) 대비 100억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4분기(42억7500만원)과 비교하면 55억3900만원 늘어난 수치다.

경기불황과 캐피털업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영업수익은 지난해 1분기 보다 3.58% 소폭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대손비용 감소 등에 힘입어 작년 23억원에서 올해 15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주캐피탈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변동성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온 결과 양질의 신규채권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올 1분기에 연체지표가 개선되면서 대손비용이 줄어든 만큼 이익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아주캐피탈은 오토 및 개인금융리스크 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채권센터를 전문화해 영업현장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왔다.

아주캐피탈 관계자는 "앞으로도 85%이상의 자동차금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중고차 및 개인금융 다이렉트 등 고효율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신한카드·롯데면세점 '아름인 도서관' 개관

신한카드는 1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대화지역아동센터'에서 롯데면세점과 함께 '아름인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 아름인 도서관은 전국 롯데면세점에서 사용된 '마이신한포인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롯데면세점이 사회공헌기금으로 기부해 만들어졌다. 신한카드는 올해 전국 각지에 35개 아름인 도서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2010년 사업 개시 후 현재까지 346개 아름인 도서관을 구축했다. 사진은 신한카드 박시철 본부장(왼쪽)과 롯데면세점 김보준 이사(오른쪽), 대화지역아동센터 박미령 시설장(가운데)이 개관을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단체실손의보 중복가입 확인 쉬워진다

금융당국·보험개발원·보험사
3대 보험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앞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이 쉬워진다. 금융당국, 보험개발원, 보험사가 공동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계리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3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다. 보험정보의 소비자 선택권, 연금보험 중복가입 확인 등도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7월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확인 시스템 △보험정보자기결정권 보장시스템 △종합연금포털 조회시스템 등 보험정보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0월 17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금융위원회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보험사가 비용을 나눠 부담한다.

그 동안 개인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직장 등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으로 중복되면 이중 보상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복가입 여부를 알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정보자기결정권 보장시스템은 보험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금융사가 영업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하는 두낫콜(do-not-call)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종합연금포털 조회시스템은 공기업과 사기업을 모두 포함한 공사연금 적립 현황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금융위 연금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kkk@

"종신연금에 사망보장도 받으세요"

메트라이프생명 신상품 출시



메트라이프생명이 종신연금에 사망보장을 더한 '무배당 언제나 더받는 연금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연금개시 시 약관에서 정한 110%에서 135%까지의 보장비율을 적립금에 곱한 '보장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연금개시 이후 시중금리에 따른 공시이율이 하락하여 연금액이 감소하더라도 보장금액은 유지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여기에 가입자가 조기 사망하여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보장금액에서 수령한 연금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적립한 남성이 58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약관에 따른 120%의 보장비율을 곱한 1억2000만원이 보장금액이 된다. 또한 이 남성이 적립금 1억원에 대한 연금을 연 400만원씩 10년간 받는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장금액인 1억2000만원에서 10년 간 수령한 4000만원을 뺀 8000만원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무배당 언제나 더받는 연금보험'은 가입자의 라이프플랜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데, 연금개시 시 적립금의 일부만 연금으로 받고 적립액의 최대 50%까지의 금액을 설정해 적립할 수 있다. 설정된 금액은 공시이율에 따라 복리로 적립되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불의의 사고나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선택이 가능하다. 이 특약으로 전환하면 약관에 명시된 일상생활장해 상태로 진단시 특약에 따른 연금액의 두 배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더존 Good,Better,Best IT그룹 DUZON

산업군별 대표기업도 다양한 강소기업도
ERP는 역시, 더존 ERP

자체 데이터 센터 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D-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모바일, 보안시스템 등 최신 IT기술을 접목

단계별 ERP Line-up
확장형 ERP, 건설 ERP, 비영리법인용 ERP 등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단계별 Line-up 보유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IFRS 연결·개별 솔루션, XBRL 솔루션,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보유

완벽한 통합 시스템
22년 ERP업력으로 산업군별 표준 프로세스, 특화서비스 보유 및 자체 확장솔루션(그룹웨어, MES, POP 등)을 통한 완벽한 통합시스템 구현

Blue Heart 더존 기업을 움직이는 푸른심장 | www.duzon.co.kr |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평생 동안 50% 할인 받고 산다

able 펀드마켓

당신의 **온라인 펀드생활**이 시작되는 곳!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평생 50% 할인**받고,
펀드전문가의 **투자컨설팅 서비스**까지!

(단, 온라인전용펀드 및 온라인클래스펀드 제외)

2014년 말일까지 현대증권 홈페이지 내 able펀드마켓, HTS, MTS로 펀드를 신규가입하거나
able펀드마켓을 통해 펀드 이동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분기 단위로 할인금액 계산 후
해당펀드 매수계좌로 캐쉬백 입금해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평생 할인도 받고! 기간: 2014년 3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홈페이지 http://www.hdable.c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나와라 뚝딱! 순금골드바 이벤트
대상 : 펀드 신규 가입 및 펀드 이동 고객 (잔고 100만원 이상)
추첨방법 : 4월, 5월, 6월 말 기준 총 3회
경품 : 1등 | 금 3.75g/10돈(1명) | 2등 | 금 3.75g/5돈(5명)
3등 | 금 3.75g/1돈(20명)

선착순 사은품 증정 이벤트
대상 : 온라인(able펀드마켓, HTS, MTS)을 통해 10만원
(매수신청금액 기준) 이상 펀드 신규가입, 이동 시 (매월 500명)
사은품 : 황사마스크, 커피 기프티콘 등 매월 1종 선정

문화상품권 이벤트
26개운용사, 120여 개 펀드 중 원하시는 펀드 신규,
이동 가입 시 운용사 별 최대 5만원 상품권 증정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1137호(2014년 3월 5일~2015년 3월 2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펀드 가입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 당사부담

able 현대증권

자동차 업계 임금단체협상 본격화

'통상임금'·'미래비전' 최대 쟁점

현대차 이달 말 노사 상견례…기아·쌍용차 요구안 논의
"복리후생비·휴가비… 통상임금 포함돼야" 목소리 높아
르노삼성·한국지엠, 신차물량 확보·회사발전 방안 포함

국내 완성차 업계 임단협 추진 현황 출처 : 각 사 노조

	요구안 확정	노사 상견례	요구안
현대차	5월 14일	5월 말	• 금속노조 공동요구안 "기본급 15만9614원·최저임금 6700원 인상, 생산공정 및 상시 업무 정규직화,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 통상임금 범위 확대" • 현대차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 한국지엠 "신차 물량 확보" • 르노삼성 "미래비전 제시"
기아차	논의중	미정	
쌍용차	논의중	미정	
한국지엠	3월 27일	4월 23일	
르노삼성	4월 17일	4월 21일	

자동차 업계가 본격적인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놓고 노사 간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는 신차 물량 확보와 미래비전 제시도 주요 쟁점사안으로 등장했다.

1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지난달에 이미 노사 상견례를 마쳤고, 현대자동차는 최근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는 임단협 요구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3월 말 가장 먼저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지으며 임단협에 돌입했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17일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 노사 상견례도 마쳤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고, 쌍용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는 대의원 회의를 잇따라 열며 임단협 요구안을 논의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 대부분은 임단협 요구안에 금속노조의 공동요구안을 담았다. 금속노조는 △기본급 15만9614원 인상과 최저임금 6700원 인상 △생산공정 및 상시 업무 정규직화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공동 요구안에 넣었다.

특히 완성차 노조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넣기로 하면서, 통상임금이 올해 임단협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대차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안에 담았다. 한국지엠 노조는 공동요구안과 별도로 통상임금에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휴가비, 개인연금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넣었다.

기아차와 쌍용차도 공동요구안과 함께 통상임금 확대적용을 요구안에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더불어 미래비전 제시도 쟁점으로 등장했다. 르노삼성은 내수판매 활성화 플랜 제시, 차기 차종 조기 확정 및 물량확보, 차기 차종 엔진 현지 생산·투자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한국지엠도 신차 물량 확보와 회사발전 방안 마련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은 현대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통상임금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면서 "철수설과 사업 축소설이 제기된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에서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신차물량 확보와 미래비전 제시가 중요사안으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태극 문양 아우디 레이싱카 아우디코리아는 '아우디 R8 LMS컵 랩핑 디자인 공모전' 최종 우승 작품을 선정하고, 오는 17일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아우디 R8 LMS컵 개막전에 우승 디자인으로 랩핑한 차량으로 경기에 출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아우디 R8 LMS 컵 레이싱 카 랩핑 디자인 공모전'에서 태극 문양에 아우디 컬러를 접목한 김주현씨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디자인 공모전 우승작으로 새롭게 랩핑한 유경욱 선수 출전 차량.
사진제공 아우디코리아

포스코, 대우인터 매각보다 '지분교류'에 무게

2010년 인수 당시보다 지분가치 1조원 떨어져
"완전매각 나선다면 배임 등 논란 휘말릴 수도"

포스코가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의 지분 처리방법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는 권오준 회장 취임 이후 '혁신 포스코 1.0'을 운영하며 그룹 계열사의 구조 개편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2010년 인수한 대우인터내셔널의 매각에 대해서 다뤄졌다. 포스코그룹사에서 가장 덩치가 큰 대우인터내셔널의 완전매각과 계열사와의 인수·합병(M&A) 등이 논의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16일 재계와 시장에 따르면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의 매각보다는 지분 교류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포스코는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3조3724억원에 인수했다. 현재 포스코가 보유한 대우인터내셔널의 지분 60.3%의 가치는 2조4103원이다. 인수 당시보다 1조원 가까이 지분가치가 떨어졌다. 이를 고려하면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선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가 완전 매각에 나선다면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쟁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배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이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도 매각보다는 지분 교류에 나설 것이란 시각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견한 석유·가스전 가운데 최대 규모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 회장 역시 지난 13일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권 회장이 대우인터내셔널의 매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지분 교류는 지난 2012년에 처음 제기됐다. 포스코는 국내 대기업과 지분 교류를 통해 발등의 불인 재무재선의 실탄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 상대 기업과 서로 경영권을 방어해주는 백기사 역할을 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우인터내셔널의 매각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시장 일부에서 제기하는 삼성그룹과의 지분 교류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SK케미칼, 노바티스와 특허소송서 승소

SK케미칼이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특허공격을 막아냈다.

16일 SK케미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노바티스가 2012년 8월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노바티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노바티스가 이번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 두 건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양사의 이번 소송은 치매치료에 효능이 있는 '리바스티그민'과 이 물질을 붙이는 약품을 패치 형태로 상품화한 '엑셀론 패치(Exelon Patch)'에 관한 것이다. SK케미칼은 관절염 치료 패치 '트라스트'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엑셀론 패치의 단순 복제약이 아닌, 차별화 기술을 적용한 'SID710패치'개발에 나섰지만 노바티스는 이를 리바스티그민과 엑셀론 패취 특허 침해로 규정했다.

결국 2012년 8월 노바티스는 특허침해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전 세계 치매치료 패치 시장을 독점해온 노바티스가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특허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갤S5 벌써 1100만대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사진)가 전작보다 더 큰 인기를 얻으며 순항하고 있다. 출시 한 달 만에 1100만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빨리 '텐 밀리언셀러(100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의 건강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판매 호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글로벌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S5는 한 달 만에 1100만대가 팔리며 전작 갤럭시S4와 비교해 더 빠른 판매 속도를 보이고 있다. 갤럭시S4보다 출고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점이 판매 호조의 이유로 분석된다.



출고가 낮춰 가격경쟁력 '업'
건강관리 기능으로 큰 호응
다음달 뉴욕서 '갤탭S' 공개

14일(현지시간)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갤럭시S5 판매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다"며 "시작하자마자 갤럭시S4보다 더 강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과 호주, 독일 등 선진시장의 판매량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2분기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문 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같은 결과는 갤럭시S5 출시와 동시에 감지됐다. 갤럭시S5의 첫 날 판매 실적은 전작인 갤럭시S4의 1.3배에 달했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시장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에서 고른 인기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의 건강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해 이 같은 여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사인 시그나는 삼성전자 갤럭시S5에 탑재된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S헬스 3.0'에 건강 코치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최초로 심장박동수 측정 센서를 장착한 갤럭시S5가 이제는 손 안의 '퍼스널 트레이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음 달 12일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삼성 갤럭시 프리미어 2014' 이벤트에서 새로운 '갤럭시탭S'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8.4인치와 10.5인치 두 가지 화면 크기로 출시될 갤럭시탭S는 2560x1600 초해상도를 구현한 AM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신 모델 성공에 이어 태블릿도 신 모델로 모바일 시장을 장악한다는 전략이다.

김지영 기자 gutjy@

태양광 기업들 "증설보다 공정개선"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생산 확대
OCI는 폴리실리콘 4·5공장 연기
기존 군산공장 제조라인 늘리기로

태양광 업종 대표기업들이 '디보틀네킹(공정개선)' 전략을 잇따라 구사하고 있다. 태양광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규모 증설을 단행할 만큼 업황 호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기존 라인의 생산량을 늘리고 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에 집중한다.

한화케미칼은 15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디보틀네킹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내년 1분기 공정 개선을 통해 여수 폴리실리콘 공장 생산량을 1만3000톤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케미칼은 공정 개선에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개선 이후 폴리실리콘 캐쉬 코스트(감가상각 제외 현금원가)는 1kg당 15~16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OCI는 14일 폴리실리콘 설비 증설 투자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아직은 폴리실리콘이 공급과잉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OCI는 2011년 3조6000억원을 투자해 4·5공장을 지으려 했으나 태양광 업황이 악화돼 2012년 5월 처음 투자 연기를 발표했다. OCI의 4공장은 건설 도중 중단된 상태이고 5공장은 투자 자체가 보류됐다.

대신 OCI는 늘어나는 중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만20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장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렸다. 또 내년 3분기 경 군산 폴리실리콘 공장 3개 제조라인의 디보틀네킹을 통해 생산량을 4만2000톤에서 5만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제일모직, 中 동관에 EP 공장 준공

年 2만7000톤 생산능력
현지 IT·차 기업에 공급



제일모직이 중국에서 고부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양산을 본격화한다. 16일 제일모직 케미칼사업부에 따르면 중국 동관(東莞)시에 위치한 동관법인(DSEP)은 EP 공장을 준공하고 양산을 시작했다.

동관공장은 약 2만2000㎡ 부지에 건축돼 4개의 생산라인에서 연간 2만70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EP는 자동차 내외장재를 비롯해 휴대폰, 모바일 기기, TV,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 합성수지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IT, 자동차 기업들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화남지역 동관공장 준공으로 화북지역 톈진(天津)공장, 국내 여수공장과 함께 중국 전지역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생산량 확대와 동시에 지역별 공급체계 확보를 통한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두게 돼 중국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매 및 생산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제일모직은 중국 상하이에 영업법인을 설립한 이래, 지난 2010년 톈진에 연간 2만4000톤 규모의 EP 공장을 준공해 중국 화북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확보했다. 이어 2012년 여수사업장 PC 2공장을 증설하며 폴리카보네이트 생산능력을 연간 24만톤으로 확대해 글로벌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가구·건자재업계, 리모델링 앞으로

수직증축 허용에 시장공략 분주

가구업체 '공간 마케팅' 강화
한샘, 건자재 브랜드 'ik' 호조
'리바트하우징' 컨설팅+구매

건자재업체는 유통채널 확대
KCC·LG하우시스 'B2C 공략'
플래그십 스토어서 토털 서비스

건설 경기는 침체지만 리모델링 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 대상을 전체 가구 수 44%에 해당하는 498만 가구로 추산하며, 매년 15만~20만 가구씩 늘어날 것으로 봤다. 가구업계·건자재업계는 함박웃음이다. 전통적인 비수기인 1분기에도 화려한 성적을 낸 이들 업체들은 리모델링 시장 공략에 분주하다.

◇가구업계, 인테리어 종합 서비스 활발 = 요즘 가구업체들은 가구가 아니라 '공간'을 판다. 업계 1위 한샘은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으로, 업계 2위 리바트는 '생활문화기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알짜 리모델링 수요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한샘은 지난해 업계 최초 매출 1조원 돌파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빛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52.6%와 39.8% 늘어난 2879억원, 22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건자재 유통 부문 성장세가 무섭다. 한샘은 인테리어 건자재 유통 브랜드 '한샘ik'를 통해 전국 인테리어업체 4000여곳과 제휴를 맺고 부엌가구는 물론 수납가구, 욕실, 바닥재, 창호 등 종합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론칭한 한샘ik 매출은 2008년 96억원에서 지난해 1353억원 규모로, 연평균 69.8% 성장했다. 올해 매출은 월 200억원 수준이다. 정홍식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샘의 브랜드 인지도와 시공을 직접 하는 사업 구조, 시공 후 AS가 상시 가능하다는 점 덕분에 다른 건자재 생산 기업들 대비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현대리바트 역시 매출 1719억원, 영업이익 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3%와 2363.16% 뛰어오른 실적을 냈다. 리바트는 '리바트하우징'을 앞세워 주방가구를 중심으로 욕실, 타일, 침구, 커튼, 조명 등 리모델링을 위한 토털 인테리어 컨설팅과 구매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리바트하우징은 최근 강남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도곡동에 자리를 잡고 국내 최대 수입타일 유통사인 윤현상재, 디자인 의자 유통업체 가구MD, 온라인 조명 유통업체 라이트플랜 등을 숍인숍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건자재업계, 소비재 시장에 눈 돌렸다 = 건자재 기업들도 1분기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KCC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와 48% 늘었고 LG하우시스도 같은 기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16.5%와 48.7% 키웠다. 유통채널 확대, 주택 리모델링 시장 개척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KCC는 전문 인테리어 브랜드인 '홈씨씨인테리어'로 B2C 시장을 공략한다. 트렌디 모던, 오가닉 네이처 등 콘셉트를 선택하면 설계, 자재선택, 시공, 사후서비스 등을 모두 서비스하는 '패키지 인테리어'가 인기다.

또 전국 30여개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홈씨씨인테리어 주요 상품을 전시할 뿐 아니라 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하우시스 역시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로 소비자 마음 잡기에 한창이다. LG하우시스 강남 지인스퀘어는 국내 최대 가구 거리로 꼽히는 논현동 한복판에 연면적 1690㎡(약 510평) 규모 3개층으로 운영되고 있다. LG하우시스 역시 지인스퀘어 방문 고객에게 창호 바닥재 벽지 등 인테리어 자재 상담부터 디자인 제안, 시공업체를 연결해주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한 건축자재 매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분기 매출 및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며 "2분기에도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작에 따른 친환경 및 에너지절감 건축자재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람 기자 zing@





한샘ik 부천 프리미엄 쇼룸의 시크 모던 콘셉트(위). 홈씨씨인테리어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은 소비자가 오가닉 네이처 콘셉트 주방에서 좌식 형태 식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한샘·KCC

한식 대중화 타고 '한식 뷔페' 뜬다

CJ푸드빌 '계절 밥상' 성공… 놀부 '화려한 식탁…'·이랜드 '자연별곡' 등 론칭

유통업체들이 한식 뷔페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CJ푸드빌의 '계절 밥상'이 좋은 반응을 얻자 한식의 대중화 바람이 불면서 '한식 뷔페'에 대한 업계 관심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놀부NBG에 이어 이랜드그룹이 한식 뷔페사업에 뛰어들었다. 신세계푸드도 메뉴·연구 개발 전문가를 확보하고, 한식 뷔페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한식 대전'이 예고된다.

놀부NBG는 지난달 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P)에 한식 샐러드 뷔페 '화려한 식탁 N테이블'을 오픈했다. 잔치문화를 모티브로 놀부의 27년 한식 노하우가 축적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국내산 식재료와 와규샤브, 전통 가마솥 수육, 화덕 로스팅 보쌈 등으로 먹는 재미와 함께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최종범의 작품을 매장 곳곳에 설치해 보고 듣는 재미를 더했다.

놀부 관계자는 "화려한 식탁 N테이블은 한국 전통 음양오행을 소재로 한 미디어 아트 작품, 음악과 함께 오감이 즐거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새로운 한식 외식문화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30일 이랜드그룹이 한식 뷔페인 '자연별곡'을 론칭했다. 1호점은 경기 분당구 원미구에 660㎡(200평) 규모로 마련됐다.

자연별곡은 '팔도를 담은 왕의 밥상'이라는 콘셉트로 팔도 별미 60첩 반상으로 꾸며진 웰빙 한식 뷔페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대표적인 쌈채소인 적상추, 깻잎, 쌈배추와 함께 뉴그린, 치커리, 비트입 등 친환경 농법의 자연 그대로의 쌈채소를 7종 선보인다. 영조의 입맛을 돋우던 고추장 양념 삼결살 구이부터 궁중 곽탕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들깨 홍합 미역국 등 왕의 수라상에 올랐던 각종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이랜드 한식 뷔페 '자연별곡 1호점' 모습.

이랜드 외식 담당 관계자는 "한식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 3년간의 연구개발(R&D) 과정을 거쳤다"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각 별미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식 뷔페는 작년 CJ푸드빌이 계절 밥상을 론칭해 대중적으로 성공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운 한식 뷔페가 고객의 발길을 끌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한식 뷔페가 결혼식 같은 행사에서 단체로 먹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계절 밥상으로 인해 합리적인 가격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건강음식이라는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었다"면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새롭고 다양한 한식 브랜드 론칭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과자값 올린 제과업계, 1분기 수익 덕 봤네

롯데 31.9%·농심 9.4% 영업익 늘어

국내 제과업체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부터 과자 가격을 인상한 것이 수익 호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제과업계 1위 롯데제과의 1분기 영업이익은 266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 늘었다. 매출액은 5107억3000만원으로 9.5% 증가했다.

롯데제과는 제과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작년 10월 가나초콜릿, 꼬깔콘 등 인기 스낵 제품 9개의 값을 평균 9.2% 올렸다. 회사 측은 "작년 4월 제빵회사 기린식품을 흡수합병한 것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농심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해 5422억7000만원에 달했다. 영업이익은 9.4% 증가한 332억6000만원, 당기순이익은 15.2% 증가한 28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농심은 지난 2월 새우깡을 비롯해 포스틱, 양파링, 수미칩 등 주요 스낵 제품의 가격을 평균 7.5% 인상했다. 농심 관계자는 "스낵 제품 판매가 늘어 매출이 증가했고, 원가를 절감한 효과가 반영돼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의 1분기 매출액은 6548억원, 영업이익은 945억3000만원으로 각각 1.6%씩 증가했다. 오리온은 작년 연말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6개 스낵 제품 가격을 평균 11.9%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4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업체 롯데제과의 가격인상 발표 이후 작년 말부터 제과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잇따랐다"면서 "누적됐던 가격 인상 요인들이 적절하게 반영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공동구매 사라지고 브랜드 론칭… 백화점식 유통 나서

소셜커머스 변심에 소비자 등 돌렸다

위메프·티몬·쿠팡 작년 적자
제살 깎아 먹기 외형 확장
"온라인 쇼핑 흐름에 역행"
오픈마켓보다 방문자 적어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에 대해 오픈마켓과의 차이점이 없는데다 가격도 크게 저렴하지 않다며 소셜커머스의 '변심'에 마음을 돌리고 있다.

최근 위메프는 유아동 의류 잡화를 취급하는 '베이비 앤 키즈 패션샵' 카테고리를 선보였고, 티켓몬스터(티몬)도 '패션 소호 전문관'을 통해 32개 브랜드를 론칭했다. 쿠팡 역시 유아동 제품 판매를 시작하며 외형 넓히기에 뛰어 들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소셜커머스 특성이 아닌 양판점식 판매로 오픈마켓과의 차별성을 없애고, 자칫 소비자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고가 제품에 위조상표가 나돌면서 소셜커머스에 대한 제품 신뢰도도 추락했다. 위조상표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치명타였다. 게다가 티몬 회원 11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소셜커머스의 고객 이탈이 가속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랭키닷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G마켓·옥션·11번가 등 오픈마켓 업체의 PC기준 월 방문자는 평균 1000만명을 넘었다. 이에 반해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600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외적으로 급성장했지만, 모바일보다 결제 금액이 많은 PC 이용자 유입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흐름은 소셜커머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지난해 소셜커머스 3사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매출 78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 성장했지만, 영업손실은 361억원에 달했다. 티몬도 지난해 매출 1148억원을 기록했지만 707억원의 손해를 봤다. 쿠팡은 지난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돼 실적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업계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같은 소셜커머스의 인지도 하락과 영업손실은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의 흐름과 역행되는 것이라는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인터넷쇼핑 판매액은 2012년 기준 32조3470억원으로 전체 소매업 판매액의 9.26%에 달해, 이미 백화점(29조원)과 전통시장(20조원)의 매출 규모를 뛰어 넘었다. 이는 대형마트(44조원), 슈퍼마켓(34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셜커머스 역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결국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벌이면서 외형 확장에만 몰두한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소셜커머스라는 장점을 살리는 대신, 기존 온라인몰과의 경쟁을 택하면서 무리한 경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형 유통 채널과의 경쟁으로 외형을 확장하는 대신, 소비자들의 신뢰와 초기 공동구매라는 장점을 되살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 119@

국내 게임사 "중국게임 모셔라"

착한 가격에 완성도 높아
'신의칼' '날' '도검2' 등
이미 검증된 대작 잇따라

국내 게임업체들이 중국 게임 모셔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업체 또한 국내 게임 퍼블리셔에 잇단 러브콜을 보내며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게임들이 한국 게임업체를 발판 삼아 한국 상륙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서 중국 게임의 창구 역할을 하는 기업중 눈에 띄는 곳은 NHN엔터테인먼트와 아이엠아이(IMI)다. 중국에서 이미 검증된 게임을 이들 업체가 잇따라 내놓으면서 국내 흥행이 어떻게 될지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NHN엔터는 중국 상하이 드림스퀘어가 개발한 웹RPG '신의칼'의 정식 서비스를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했다. 이 게임은 PC게임으로는 중화권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대만 소프트스타의 히트작 '선검기협전'의 정식 판권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특히 100여명의 개발자들이 4년에 걸쳐 공을 들인 것은 물론 제작비에만 100억원을 투입한 대작이다.

아이템매니아로 유명한 아이엠아이는 지난 2011년부터 '명품온라인' '삼초온라인' '구룡전' '수라도'에 이어 오는 6월 공개 서비스 예정인 '날(NAL)' 등 최근에만 5종의 중국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있다.

날은 중국 픽셀소프트가 4년간 400여명, 200억원을 투입해 개발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도검2'란 이름으로 텐센트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중국판 '블레이드&소울'이라고 불리며 기대를 받고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국내 업체가 중국 게임에 눈독을 들이게 된 것은 국내 게임 개발에 기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작됐다. 또 국내에서 개발되는 게임은 완성도 대비 높은 가격대가 형성돼있어, 가격 대비 고성능의 게임을 찾다보니 자연스레 중국 게임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중국의 게임 개발력이 급성장했고, 기대 이상의 고퀄리티 온라인 게임들이 출시되고 있다는 점도 중국산 게임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다. 과거에는 중국 게임에 대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유저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아이엠아이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국내 퍼블리셔들의 요구가 적극 수용되고, 예년에 비해 업무 협조도 빨라져 국내 유저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게임 업체의 경우 한국 시장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한국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쇠약해진 제약사

내수 0.57%·수출 1.9% 성장
작년 의약품 시장 부진 심각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심각한 부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발표한 '2013년도 국내의약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직전년도 대비 2011년 -0.94%, 2012년 0.32% 성장한 데 이어 2013년에도 0.57% 성장하는데 그쳤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19조3365억원으로 9983억달러(1022조원)에 이르는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1.8%에 불과해 여전히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수출은 3년 사이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21억1729만4000달러로 전년 대비 겨우 1.9% 성장했다. 2011년 14.8%, 2012년 17.5% 성장에 비하면 급작스런 부진이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출진흥부 최용희 차장은 "환율 하락과 상대국의 의약품 수입 허가가 미뤄지는 현상이 다년간 누적되면서 수출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성제 기자 psj@



삼성전자, 기가비트급 무선랜

삼성전자가 기가비트급 무선랜 솔루션 출시 기념으로 서초사옥에서 엔터프라이즈 무선 솔루션 데이 행사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초당 1기가비트 이상의 데이터 전송을 실현하는 기가비트급 와이파이 기술(802.11ac)을 사용한다. 또 보안을 위한 전용 모니터링 모듈과 안테나가 내장됐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카카오톡, 내달부터 송금 서비스

시중은행들과 '뱅크월렛카카오'… 하루 최대 10만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빠르면 오는 6월 온라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16일 금융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를 내놓는다.

이 서비스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등록할 수 있는 '카카오톡' 친구에게 직접 송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가상 계좌에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톡은 우리·KB국민·NH농협은행 등 15개 은행,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시중 은행들은 서비스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서비스로 카카오의 사이버머니 중심 축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은 그동안 '초코'라는 사이버머니로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뱅크월렛카카오'를 통해 직접 유료 서비스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초코'의 기능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또 카카오는 금융 결제에 '카카오톡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기능도 선보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 119@

블레이드, 애니팡2 눌렀다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앱 1위
지분 보유 위메이드 호실적 기대

네시삼십삼분(4:33)의 '블레이드'가 선데이토즈의 '애니팡2'를 제치고 국내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애플리케이션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블레이드가 흥행하며 덩달아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4:33의 모바일 역할 수행게임(RPG) '블레이드'가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1위에 올리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매출 1위에 오르면 증권업계에서는 일 매출을 평균 2억~3억원으로 추정한다. 이 게임은 지난달 22일 출시 이후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양대 마켓에서 2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다.

블레이드는 출시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게임이다. 언리얼엔진을 사용해 고퀄리티 비주얼을 선보였으며 사전 이벤트에 10만명의 이용자가 몰렸다. 이 게임은 기존 퍼블리싱과는 다른 개발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앞세워 단순 서비스 및 마케팅, 운영뿐만 아니라 각종 데이터와 기술적으로 협력한 첫 작품이기도 하다.

블레이드가 인기를 끌면서 다름아닌 위메이드가 미소를 짓고 있다. 위메이드는 4:33의 총 31.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40억원을 투자해 4:33의 지분 23.59%(51만여주)를, 위메이드의 자회사 조이맥스는 2011년 20억원을 투자해 8.16%(17만여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4:33은 지난해 '활'과 '수호지' 등이 성공하면서 2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레이드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위메이드와 조이맥스 모두에게 이익이 반영될 예정이다. 위메이드의 관계사로 4:33의 실적은 매출이 아닌 영업외 수익으로 잡혀 당기순이익 확대에 기여한다. 정유현 기자 yhssoo@



이투데이 교육센터 대관안내

대관 문의
대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임대 가능여부 확인
전략사업실: 02-799-2683

대관 신청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송부
FAX: 02-784-2666

시설 현황
스크린 | 프로젝터 | 노트북 | 유선 Mic 2ea | Console | Speaker
WiFi 가능 | 현수막 부착 가능

위치 안내
대방역 도보 1분
샛강역 도보 3분
여의도역 도보 10분



'이투데이 | 교육센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TEL.02)799-2600 | FAX.02)784-1003 | www.etoday.co.kr



(주)데니스 www.dennisgolf.co.kr | www.dennismall.co.kr | 02-3481-2250

중국서 뜨는 산업 ② 애견시장

중국인의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애견 사이트 아이고우왕에 따르면 최근 중국 애완견의 수는 해마다 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약 1억 마리 이상의 애완견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애견 산업이 중국의 신흥시장 중 하나로 연평균 약 1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저지방·방부제 무첨가 사료 먹는
'견공'이 1억마리

애완견 수 年 10% 이상↑
산업규모 2017년 15조원
미용·의료 수요 증가세

해외브랜드 수용도 낮아
中스타일·문화에 맞추고
온라인 활용 시장 진출

중국첸전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애견산업이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2017년 애견산업생산액은 960억위안(약 15조808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충칭 청두 우한 등 18개의 중·대형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애견산업은 북방지역보다 특히 쟝수 저장 상하이 같은 남방지역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있다.

중국 5대 애견용품 박람회 중 하나인'베이징 국제 애견동물용품 박람회(CPSE)'가 매년 베이징에서 열린다.

박람회 관계자는 "CPSE는 300여 개의 중국 기업과 해외기업 등이 대거 참여하는 박람회로 매년 개최성과를 토대로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애견용품 시장에는 애완견 의식주 해결을 위한 용품이 주요 품목이었지만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비 수준도 함께 높아져 액세서리 등과 같은 고급용품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또 미용 의료 등의 서비스 관련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애완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애완동물 식품에 대한 트렌드가 '웰빙'으로 옮겨져 저지방 천연 유기성분 색소 및 방부제 무첨가 등의 상품이 인기"라고 말했다. 또 "웰빙 식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긴 하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애견산업 시장의 해외 브랜드에 대한 수용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진출 시 본래 기업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문화 및 스타일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애견 식품 관련 중국 농업부의 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보통 24-36개월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 진출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중국 애완견 수 1억 마리와 비교하면 동물병원·애완동물 가게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유통 측면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계자들은 "중국 내 전자상거래가 나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온라인 시장을 이용해 애완용품을 사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간적 제약이 적은 온라인 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애플 vs 삼성, 포스트 특허전쟁은 '그래핀'

〈터치스크린 사용 재료〉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도… 얇고 휘어져 신소재 각광
'입는 기기' 경쟁 치열…삼성 17개·애플 2개 출원서 제출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 구도가 법정을 넘어 첨단기술로 다시 이동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통신은 차세대 기기와 관련해 원자층(atom-thick) 기술 특허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그래핀(graphene)을 포함해 클링랩(cling wrap)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로 구성된 원자 1개 두께의 얇은 막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터치스크린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다.

그래핀은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며 신축성도 뛰어나다. 이 때문에 더 얇고 구부릴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구현에 필수적인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업계는 이와 관련해 스마트워치와 휘는 기기 등 '입는 기기(wearable device)'의 본격적인 사용을 앞두고 더욱 얇고 강하며 유연한 재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은 '입는 기기' 시장의 매출이 5년 안에 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 애플 구글이 그래핀과 관련한 특허 확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모바일기기에 사용 가능한 그래핀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하는 기업이 미래의 스마트 기기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까지 삼성이 이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따르면 삼성은 미국에서 그래핀과 관련해 3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17개의 특허출원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그래핀과 관련해 2건의 특허출원서를 제출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양키그룹은 2016년까지 모바일 기기 시장이 8470억 달러(약 86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쥬니퍼리서치는 '입는 기기' 시장이 5년 뒤 190억 달러로 140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핀 필름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한 홍병희 서울대 화학과 교수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하드웨어와 디자인 부분에 대한 혁신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그래핀과 같은 신소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김나은 기자 tsmin@



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 실종자 수백명 '망연자실'

15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문시간지 지역 메그나강에서 여객선이 침몰한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이 강변에서 구조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이 여객선은 정원보다 100명 이상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다 폭풍우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8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실종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시간지/AP뉴시스

글로벌 리포트

GM, 해외 300만대 추가 리콜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전 세계에서 약 300만대의 자동차를 추가로 리콜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M은 이날 5차례에 걸쳐 전 세계에서 299만대, 그 중 미국에서는 271만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05~2007년 생산된 쉐보레 콜벳 11만1889대를 비롯해 2014년형 말리부 14만67대, 2013~2014년형 캐딜락CTS 1만9225대 등이다. 2014년형 실버라도와 GMC 시에라 픽업, 2015년형 타호 스포츠유틸리자동차(SUV) 역시 리콜에 포함됐다.

리콜 원인이 된 차량 문제는 다양했다. 일부 모델은 엔진이 데워지면 헤드라이트 조향 각도가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됐다. 눈이나 얼음에 의해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며 말리부는 브레이크 잠재적 결함 가능성이 보고됐다.

이번 대규모 리콜로 GM은 2분기에만 약 2억 달러(약 2052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월마트 1분기 순익 5%↓ 어닝쇼크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마트는 이날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 감소한 3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별함목을 제외한 주당 순익은 1.10달러로 월가 전망치 1.15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0.8% 증가한 11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역시 월가 전망치 1163억 달러보다 적은 것이다.

월마트는 이와 함께 현 분기 주당순익이 1.15~1.25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가는 월마트의 2분기 주당 순익을 1.28달러로 내다보고 있었다.

더그 맥밀런 최고경영자(CEO)가 회사의 매출 성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베트남 정부 "한국업체들에 배상"

베트남 당국이 최근 불거진 반중국 시위로 피해를 본 한국업체들에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 항 꿍런 호찌민 인민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남부 빈즈엉성 폭력시위와 관련해 오재학 호찌민 주재 한국 총영사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런 계획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업체 피해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이를 기초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폭력시위 재발을 방지하고 약탈 가담자는 철저히 색출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위사태 관련 책임자 문책 등 내부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총영사는 전면적인 보상과 함께 한국기업의 조업 정상화를 위해 주변 안전을 보장하고 당국이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美 '망 중립성' 포기…인터넷 속도 차별 받는다

연방통신위원회 개정안 가결
통신사가 추가비용 부담하면 빠른 회선 제공… 고객 이용
구글·아마존·페북 등 반발

미국에서 통신사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한 지불한 사업체의 콘텐츠를 더 빠른 인터넷 속도로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터넷 정책이 도입된다. 인터넷 통신망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쓰게 한다는 '망 중립성(net-neutrality)'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셈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5일(현지시간) 통신사들의 배급권을 우선 보장해주는 새로운 망 중립성 정책 개정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처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ISP)가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속도에 차별을 둘 수는 없지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에 따라 빠른 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FCC는 약 4개월간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연말쯤 새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글이나 아마존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공급업자들이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같은 ISP와 협상을 통해 추가 비용을 내면 더 빠른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끊김 없이 빠른 속도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차별할 수 없다는 이른바 '망 중립성 정책'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FCC는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광대역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자 상고하는 대신 2010년 마련한 망 중립성 원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이 마련한 이 방안에는 민주당 성향 위원 2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성향 위원 2명은 반대했다.

앞서 구글과 이베이, 아마존, 야후, 페이스북 등 주요 콘텐츠 기업들은 휠러 위원장에 서한을 보내 "FCC의 망 중립성 개정안은 인터넷에 대한 큰 위협"이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돈을 지불한 콘텐츠만 빠른 인터넷 속도로 즐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대 콘텐츠 공급 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빠른 회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소규모 신생 콘텐츠 공급 업체들은 빠른 회선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신흥국 도시화 바쁜데 생산국은 수출 규제
니켈가격 올 들어 50% 급등

교량·파이프라인·건물 등 사용
앞으로 2~3년간 추가 상승 전망

니켈 가격이 올들어 50%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니켈 가격은 최근 파운드 당 9달러를 넘어섰다. 연초에는 6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니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젭 핸드웨거 골드스탁트레이드닷컴 애널리스트는 "니켈은 스테인리스스틸의 주요 재료로 다리와 파이프라인, 건물에 많이 쓰인다"면서 "주요 생산국이 수출을 규제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니켈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서방의 제재로 니켈 수출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핸드웨거 애널리스트는 "특히 대부분의 니켈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일본을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미국 역시 가격 급등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동안 니켈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전일 LME에서 니켈 현물 가격은 미터톤 당 2만645달러, 1파운드 당 9.36달러를 기록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美·러 갈등… 서구 에너지기업 울상

로스네프트 CEO 추가 제재
자원확보 위해 긴밀관계 유지
BP·토탈·엑손모빌 등 속앓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권의 러시아 제재에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업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러시아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고위급 관리자와의 끈끈한 관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최근 추가 경제제재 대상에 러시아 국영 석유업체 로스네프트의 이고르 세친 최고경영자(CEO) 등 러시아 핵심인사들을 포함시키면서 이들 업체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영국 에너지 업체 BP의 밥 더들리 최고경영자(CEO)는 러시아 국영 석유업체 로스네프트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와 관계가 돈독하다. BP는 로스네프트 지분 19.75%도 보유하고 있다. 토탈 엑손모빌 로열더체셀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러시아의 막대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크렘린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토탈의 한 고위 임원은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의 새로운 자원에 손을 뻗기 위해 러시아 업체 지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방권이 제재 범위를 사업체가 아닌 개인으로 한정시켜 이들 업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고교생·취준생… 1만5000여명 몰려

삼성 협력사 채용 현장 가보니

대덕전자·신화엔지니어링 등 그룹계열사 거래 200여 업체 신입·경력 2000명 채용 나서

이력서 들고 '현장면접' 분주 기업도 '인재 찾기'에 구슬땀



'삼성협력사 채용 한마당'이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협력사 122개사, 2차 협력사 23개 사 등 총 200여개의 삼성협력사가 참여한다.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나도 양복 입고 올 걸 그랬어."

15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C3홀. 앳돼 보이는 남학생이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양복을 입고 크로스 백을 멘 한 남성이 곁을 지나가자 눈을 떼지 못했다.

이날 코엑스에서는 삼성 10개 계열사의 1·2차 협력사가 참여한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이 열렸다.

3회를 맞이한 올해 행사는 200여개의 협력사가 부스를 마련하고, 1만5000여명의 구직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오는 7월에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교생이 정장을 갖춰 입은 취업준비생들과 섞여 행사장을 누비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대덕전자 부스는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섰다. 이력서를 손에 든 이들은 긴장한 듯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현장 면접자로 나선 대덕전자 인사총무팀 직원은 매서운 눈매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력서와 지원자의 얼굴을 수시로 번갈아 가며 보며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대덕전자에 입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질문을 받은 한 남성 구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답변해 나갔다. 면접은 10분 남짓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협력사인 신화엔지니어링 부스에는 여러 명의 고교생이 현장 면접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신화엔지니어링은 면접을 진행하면서 채용 희망 학생들의 학부모 연락처도 받아뒀다. 고교생의 경우 취업을 할 때 부모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사 전날 경남 거제에서 올라왔다는 신화엔지니어링 서창조 관리부장은 "회사의 기술이전이 끊기지 않도록 앞으로 기술자로 양성할 수 있는 인재를 찾으려고 한다"며 "회사가 지방에 있는 만큼 숙식 제공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취업 설명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탓에 몇 시간 걸려 채용 박람회를 직접 찾은 것이다.

목포해양대 4학년 재학 중인 손혜진, 문태지씨도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박람회를 찾았다.

손씨는 "채용 박람회가 지방에 잘 열리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서울에서 오늘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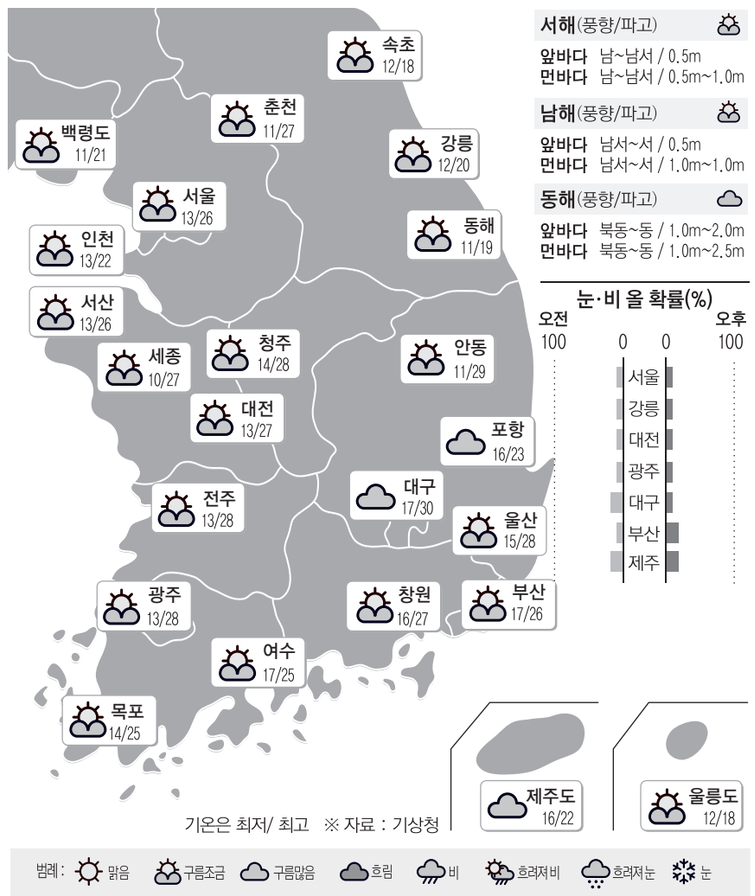
내일의 날씨

5월 16일 해뜸 05:22 해짐 19:36 달뜸 22:05 달짐 07:27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새벽 한때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18~30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m로 일겠다.



'주가조작 혐의' 서정진 회장 약식기소

〈셀트리온〉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 외 관계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15일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로 서 회장과 김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 셀트리온 등 관련 법인 4곳에 대해 약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회장 등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주회사와 계열사, 우리사주조합, 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통상의 주가조작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서 회장은 애초 세 차례에 걸친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중 2011년 5~6월과 10월에 이뤄진 자사주 매입은 관련 공시와 거래소 신고 등 절차를 이행했고 일시적으로 공매도 물량을 매수했을 뿐 시세조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다.

박용남 기자 bangnam@

'하나고에 337억 출연' 김승유 前회장 불기소

'공소권 없음' 형사처벌 피해

하나은행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수백억 원을 불법 출연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승유(71)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형사처벌은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62)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벗은 이유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인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개정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종전에는 이 같은 예외규정이 없어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의 출연이 불법이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주주 자산 양도금지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시행령 개정은 공익적 목적의 기부도 처벌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법이 바뀌어 더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재임 기간 벌어진 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그는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나캐피탈에 지시하고 미술품을 과도하게 구매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외환은행 노조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세월호 참사 한 달 檢·警수사 '사고 원인' 윤곽

과적·고박·평형수 부족… 승무원 과실까지

선장·기관장 등 4명 살인죄 기소 끝까지 남은 양대홍씨 시신 수습 유 회장 장남 대균씨 A급 수배령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과적과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 선적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여기에 이 같은 승무원들의 중대한 과실까지 겹치면서 침몰까지 이르게 됐다.

또 검찰은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을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 특히 선장, 1·2등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는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이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에 이른다.

살인 혐의로 기소될 정도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선장은 검찰에서 "선원은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배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경위에 대해 털어놔 다시 공분의 대상이 됐다.

반면 승객을 구하려던 서비스직 승무원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다. 합동구조팀은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 남아 3층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승객 등을 구하다가 실종된 승무원 양대홍(45) 사무장의 시신을 수습했다.

한편 선사 실소유주 관련 비리를 조사 중인 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A급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현재 검찰은 대균씨의 밀항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유 전 회장의 은신 중인 것으로 점쳐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에는 신도들이 검찰의 강제진입에 대비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홍보담당 조계웅씨는 15일 금수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탄압 중단'과 '공권력의 교회진입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배수진 친 구원파

15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조계웅 대변인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모그룹 불매운동 불똥… 신협중앙회, 수사의뢰

"구원파 아니다"…제품리스트 확산에 최초 유포자 명예훼손 검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세모그룹 불매운동이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다.

16일 주요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 트위터, 블로그 등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관련된 세모그룹 제품을 사지 말자며 '세모그룹 제품 리스트'를 담은 글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글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불매 목록을 보면 '노른자쇼핑'과 '다판다' 등 유통업, 일부 요식업점과 식품업점, '온나라' 등 제조업체와 '문진미디어' 등 출판 관련 회사 등이다.

또 애초 '신협'이라고 명기된 목록도 퍼졌는데 신협중앙회는 이를 처음 유포한 사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는 "일부 조합의 개별 사안을 '신협'으로 표기해 전체 신협이 세모그룹이나 구원파인양 오도돼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대다수 선의의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협중앙회는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신협도 천주교 신협 등 다른 종교단체 신협처럼 정부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단위신협"이라며 "일부 신협은 세모그룹 관련 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200억 손해' 수협 간부에 징역 6년

수협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전 수협 간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15일 수협에 200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0) 전 통영시 사량수협 유통판매과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사량수협과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줬고 많은 돈을 부동산, 귀금속, 고급차량 등 본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했다"며 "피고의 책임은 막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협의 실제 손해액은 범행금액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경희한의원 "간호조무사 구합니다"

여성직장 재탐색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 6일제

모집요강

모집직종	간호조무사
직무내용	한의원 전반적인 업무
접수마감일	채용시까지
고용형태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여성, 간호조무사 자격면허(필수)

한방의료를 주 사업으로 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구한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경희한의원은 가족처럼 오래 일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희한의원에서 모집하는 간호조무사는 한의원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다.

특히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만큼 간호조무사 자격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을 우대한다. 이 때문에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눈여겨볼 만한 일자리로 꼽힌다.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직이다. 연봉은 모집요강을 참고하면 되지만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한의원 측은 설명했다.

근무는 주 6일제로 월~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다.

복리후생으로는 연금 4대보험이 가입돼 있으며 퇴직금이 지급된다. 또한 중식 또는 중식비용이 제공된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인 간호부(031-751-7445)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진 기자 tjpippo@



공병호의 독서산책

허병민, '나의 꿈은 내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책을 소개한다. 책과 그림 그리고 사진이 적절히 잘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인생살이처럼 독특함이 묻어나는 책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18가지 퍼즐에 대해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생각거리를 풍성하게 제시하는 책이다.

첫째 퍼즐, '당신은 자신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독자 여러분은 어떤가. 할 수 있는가. 이 책의 매력 가운데 하나는 중간중간에 촌철살인이라 할 만한 멋진 말이 들어가 있는 점이다. 잭 웰치 전 GE 회장은 "자신 있는 사람만이 심플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런 한 문장에 "그래, 그래"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다음과 같은 문장은 이 책을 계속해서 읽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더한다. "인생의 목적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거란다. 너에게는 너만이 완성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 있고, 그것은 네 사랑으로 채워야 할 것이지 누군가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둘째 퍼즐, "아버지 저는 그냥 '허병민'으로 살겠습니다." 자유분방한 부엉이형 아들과 빈틈 없고 부지런한 아침형 인간인 아버지가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된, 저자의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한 문장이다.

셋째 퍼즐, '타인은 지옥이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 남들이 우리를 행복하다고 믿게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는지 모른다. 저자의 다음과 같은 고백에서 독자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아니면 '잘나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그동안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을까, 아니면 남들에게 잘난 사람처럼 비쳐지기 위해 노력해 왔을까."

>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게
>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 자기 자신이 되는 거란다
> 너만이 완성할 수 있는 삶

책 크기도 작고 부피도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내용도 그러려니 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책을 읽다 보면 점점 더 저자의 고민이 그만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넷째 퍼즐, "문제는 어깨에 들어간 힘이야, 바보야." 2012년 한해 동안 저자는 글을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고 한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멋진 사례가 하나 소개된다. 1960년대 소니 리스튼이라는 헤비급 복서로, 54전 50승 4패의 경력을 가진 그는 '인간기관차'로 불릴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1962년 플로이트 패터슨을 1회에 KO 시키고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지만 2년 뒤 무하마드 알리에게 패하고 만다. 이후 그는 재기에 실패하고 마는데 그가 실패한 딱 한 가지 이유는 이제껏 그래 왔던 것처럼 그는 한 방에 게임을 해결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어깨에 들어간 힘 때문에 그는 단명에 그치고 만 비운의 복서가 되고 말았다.

저자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글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내 어깨를 푹푹 누르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고 있었으니 글 쓰는 과정 그 자체를 온전히 즐기지도,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가 해법으로 찾아낸 것은 신입사원 시절 보았던 깔끔한 폭스바겐의 광고 문안, 즉 "Think small"이었다고 한다.

잘되면 좋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렇다면 어깨에 힘을 빼고 그 순간에 그 자체에 그 과정에 몰입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대단한 글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써 나가는 것이다. 저자는 묻는다. "여러분은 오늘 어깨에 얼마만큼의 힘이 들어가 있었나." 생각 좀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손동영의 CSR 이야기



한국SR전략연구소장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기업의 기부, 이번엔 달라야 한다

국가적 재난으로 고통을 겪을 때마다 으레 등장하던 성금 모금 현장을 보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임을 감안하더라도 예외적 현상이다. 참사 초기 일부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의 개인적 기부가 뉴스로 소개됐지만 그마저도 이젠 소식이 끊겼다.

세월호 참사가 던져주는 사회적 함의가 가볍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어떻게 초래됐고,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지 깊게 고민하기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본다. 특히 성금 모금 혹은 기부행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참사 초기 개인들의 성금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금모금 반대 움직임이 퍼져나갔다. 한국PD연합회는 당시 '세월호 성금은 시기상조'라는 성명서를 통해 "참사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세월호 사고 유가족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에서 모금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의 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천안함 성금 일부가 지휘관과 참모의 격려금 및 회식비에 사용됐다'는 일부의 의혹 제기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성금 모금이 과거처럼 언론의 관벌이기에 휩쓸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님은 분명하다.

지금 이처럼 성금 모금을 둘러싼 사회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뭔가 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은 사회공헌이란 이름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예산도 미리 짜놓는데 그 쓰임새를 들여다보면 대개 기부금이다. 거꾸로 보면 언론이나 비영리기구(NPO)들은 기부를 얼마나 했느냐를 두고 그 기업이 사회공헌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판단한다. CSR의 본령이 기업경영의 핵심 전략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기부금 타령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 기업의 기부는 적당한 모금단체를 골라 돈과 물품을 건네는 단순기부에서 벗어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는 기부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내고 언론에 이름을 알리는 대기업집단이 먼저 변해야 한다.

대부분의 CSR 모범 사례들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에 집중되듯, 기부에서도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를 눈여겨볼 만하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1년부터 '미국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자'(Create Jobs For USA)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스타벅스가 거액의 기부금을 먼저 내놓고 매장 방문 고객들이 기부금을 보태 미국 내 낙후지역의 지역밀착형 금융회사인 '지역개발금융기관'(CDFI)들에 기부한다. CDFI들의 전국 조직인 '기회금융 네트워크'(OFN)가 최근 낸 리포트를 보면 캠페인으로 그동안 1520만 달러를 모았고 이를 지렛대로 CDFI들이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규모가 1억600만 달러에 달했다. 낙후지역 중소기업들이 자금 지원으로 회생한 덕분에 50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새로 일자리를 갖거나 기존 일자리를 잃지 않게 됐다고 한다. 기업의 기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 캠페인에서 목격한다.

미국의 NPO인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nited Way Worldwide)의 브라이언 갤러거 회장은 지난달 국내의 한 강연에서 "기업 자선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경제의 변화가 빨라졌기에 잘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건강관리기업 '유나이티드 헬스그룹'(UHG)의 케이트 루빈 부사장은 코스리와 인터뷰에서 "기부는 UHG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서 핵심이다. 우리가 살고,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우리만의 차별점이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말하는 기부는 우리가 익히 봐 온 기부와 크게 다르다. 기부 자체가 아니라 기부 이후, 그 너머를 고민하고 실천한다.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은 시스템 전면개혁에 착수할 것이다. 기업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해법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이미 예산을 짜놓은 기부를 그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새 시스템을 만드는 고차원의 기부 말이다.

온라인 와글와글 패스트푸드 근로조건, 직영보다 개인점포가 문제야



○…세계적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 서울 신촌점 앞에서 15일 열린 '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날 한국행동'에서 참가자들이 생활임금 지급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패스트푸드 직영점의 경우 근로계약 조건을 잘 지킨다. 그러나 개인 점포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은데 큰 문제다", "패스트푸드 중에서도 일부는 시급이나 야간 근무 수당까지 잘 챙겨준다더라. 문제는 이런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 "패스트푸드를 비롯해 일반 사기업의 청소부 및 경비 등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부자들 배 채워줄 필요 없다. 이는 당연한 권리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제2롯데월드가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조망권을 침해하고 교통지옥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네티즌들은 "세상 어디에서 랜드마크를 아파트 단지 사이에 짓느냐. 그 동네 아파트 많이 들어서면서 안 그래도 출퇴근 지옥인데.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지금도 교통 때문에 난리인데 제2롯데월드 오픈하면 장난 아닐 듯", "저렇게 차 막히는 곳에서 비싼 돈 들여 사는 이유가 뭐냐. 개미굴 같은 서울" 등 우려의 글을 쏟아냈다. 반면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저거 다 짓고 나면 아주 멋있을 거 같다", "일단 만들어 보고 결과는 지켜보면 알겠지"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김우람 기자 hura@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국세청 환급금 조회…오후 6시 이후 이용하면 원활
2. LG G3-아이폰6 한판 승부, 스펙 비교해 보니
3. 현대차 美서 너클암 파손으로 사고…2470억원 징벌배상
4. JTBC 손석희,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조용한 신경전
5. "직원연봉 1000만원 인상"…'통큰 경영인' 이중근 부영 회장

오늘의 BAE 배국남닷컴 www.baekn.com

'인간중독' 위험한 사랑에 빠진 임지연



배국남닷컴은 15일 배우 임지연을 만났다. 임지연은 신인으로서 송승헌과 호흡을 맞춘 영화 '인간중독'의 헤로인이다. '인간중독'은 베트남 전이 한창이던 1969년 한국 후방 부대를 배경으로 전도유망한 참전 용사(육군 대령) 김진평(송승헌)과 부하의 아내인 종가흔(임지연)의 위험한 사랑을 농밀하게 그렸다.

임지연은 노출 연기에 대해 "부담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다. 신인이라 걱정이 더 많이 됐다. 시나리오를 읽고 울컥한 것은 처음이었다. 대본을 울면서 봤다. 그만큼 스토리가 좋았고, 종가흔 캐릭터가 욕심이 났다"며 "김대우 감독의 전 작품을 정말 좋아했고, 동경의 대상이었다. 노출로 인한 걱정은 했지만 감독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지연은 신인으로서 한류스타 송승헌과 호흡을 맞췄다. 이에 그녀는 "정말 잘해줬다. 나보다 한참 선배인 데도 먼저 편하게 대해줬다. 촬영 내내 불편함 없이 자상하게 배려해줬다. 스스로 내성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말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자상한 면이 많다. 특유의 유머도 있다"고 밝혔다.

'인간중독'은 베트남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69년,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하관계로 맺어진 군 관사 안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비밀스럽고 파격적인 사랑이야기를 그린 멜로물이다. '방자전' 김대우 감독의 신작으로 송승헌·임지연·조여정·온주완·유해진 등이 주연을 맡았다.

임지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에 재학 중으로, 연극 '택시 드리벌', '해무' 등을 통해 연기력을 쌓았다. 단편영화 감독 사이에서 개성 있는 마스크와 연기 잘하는 신예로 소문이 나 있는 그녀는 '인간중독'을 통해 관객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최두선 기자 sun@



데스크 칼럼

세월호 참사보다 더 슬픈 두가지 비극



김 광 일
부국장 겸 뉴미디어실장

나라 전체를 통곡의 바다로 만들어버린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은 대한민국이 두 가지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확인해줬다는 점이다.

첫 번째 결함은 이 나라에 정직한 리더가 없다는 사실이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달이 되도록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 사회적 지도자 누구도 국민 정서에 목을 매며 눈치만 볼 뿐 국가 차원의 올곧은 목소리를 내는 리더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9·11테러든, 세월호 참사든 국가적 비극에 집단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5000만 국민을 추스르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국가대표급 리더가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없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2008년 이명박 정부를 흔들거리게 한 촛불시위를 떠올리며 행여 유가족과 범국민적 정서에 손톱만큼의 반감이라도 일으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치권과 관료들은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주범으로 몰리며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생존전략에 올인 중이다.

저녁 시간 손님이 없어 폐업 직전인 식당들이 전국에 즐비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는 물론 실물경제가 파탄 일보 직전이지만 누구 하나 훌훌 털고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자며 긍정의 에너지를 던져줄 리더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 가정에 비극이 생겼다고, 회사 내 참극이 터졌다고 가장과 사장이 울고 있는 가족과 사원들을 몇 달째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슬픔에 빠진 가족을 추스르고, 일으켜세워야 한다. 그게 가장이고 사장이다.

모든 국민이 집단 우울증세를 보이고, 실물경제가 붕괴 일보 직전이건만, 대통령도, 정치적 지도자도, 재계 지도자도, 인권지도자도, 교수집단도, 이 나라 리더급 누구도 총대를 메고 "훌훌 털고 일어섭시다"라고 외치는 이가 없다.

개념 없는 기득권자라며 사이버테러를 당할까 봐 다들 눈을 감아버린 형국이다. 슬프게도 우리에겐 진정한 리더가 없다. 대통령, 장관, 당 대표 등 직급만 높다고 리더가 아니다.

두 번째 드러난 결함은 관피아를 척결, 국가시스템을 개조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이 이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피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것처럼 단박에 깨부숴 개혁할 수 있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 관피아는 우선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부처마다 있다. 관피아의 원조인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를 비롯해 법피아(법무부), 국피아(국토교통부+건설), 교피아(교육부+교육계), 산피아(산업통산자원부+재계), 해피아(해양수산부+해운업계), 여피아(여의도정치권+산하단체) 등 전 부처마다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다. 관피아의 핵심은 재직시 숱한 위인설관(爲人設官)형 기관과 단체를 만들어놓고, 고시 선후배들이 정년 퇴임시 서로 자리를 챙겨주는 이권 독점이다.

또 각종 이권과 규제권한을 가진 산하단체로 옮겨 특정 산업계 로비창구 자리로 활용, 선후배가 떡고물과 뇌물을 나눠 갖는 악취 풍기는 부패 연결고리의 핵심이 관피아의 본질이고 낙하산 인사의 원동력이다.

문제는 40년 넘게 이어져온 관피아의 연결고리와 견고함은 5년 단임 대통령이 결코 해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임기 내 한 개 부처 관피아만 척결해도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것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관피아 개혁을 공무원 스스로 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관료들은 절대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지 않기 때문이다. 관료들은 관피아가 일상이고, 정년 퇴임 2, 3년 전부터 꿀과 젖이 흐르는 산하기관을 찾아내 윗선 아랫선 줄대는 데 전력투구한다.핵심은 관피아 척결과 국가개조를 절대 공무원들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데리고 일을 하는 대통령도, 현 정권도 관피아 척결, 국가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해 속으며 소중한 300명 아이의 목숨을 또다시 잃어버리는 처참한 비극을 반복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이번 비극이 던져준 2가지 교훈은 반면교사가 아닌, 앞으로도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좌절감만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책임과 희망은 없고 립서비스만 무성할 때, 비극은 순식간에 분노와 거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 역사가 그렇다.

wndd@

김준형의 이슈 마당발

구급자 길 터주기, 언제까지 캠페인만



매체가 다양화하면서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한 공익캠페인도 여러 형태가 됐다.

언론학에서는 이같은 공익캠페인을 '계획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수용자의 이해'로 해석한다.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그만큼 수용자의 이해(동의)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공익캠페인은 과거 단순한 표어나 노래, 광고, 언론사의 사설 또는 보도에 국한했다. 이제는 공익캠페인을 목적으로 한 드라마와 단편 영화도 등장한다.

접근성이 쉬운 TV예능프로그램도 공익캠페인에 나선다. 십 수년 전,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이 관심을 모았다. 이후 칭찬하기, 소외 이웃돕기 등으로 영역도 넓혔다. 일시적이었지만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

예능 프로그램이 다시 공익을 앞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자는 뜻을 담았다. 대통령이 직접 프로그램 출연진을 만날 만큼 세상의 관심도 높아졌다. 제작진의 뜻을 담아 TV CF도 만들었다. 좋은 취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대를 가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대중이 기본 취지를 공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점진적인 의식 변화가 이뤄지는 사이, 이를 막아서는 일련의 사건들이 불거진 탓이다.

멀쩡한 여자 연예인은 구급차를 이용하다 혼쭐이 났다. 행사에 늦었다는 게 이유였다. 일이 커지자 그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진짜로 몰랐을 것이다. 알았다면 그런 사실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리며 자랑하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실종자 구조용 소방헬기를 붙잡아 타고갔던 전 남도지사도 뭇매를 맞았다. 애써 해명을 하면서 당위성을 증명하려 했다. 이용 당시 "공중 구조작업이 종료된 시점이었다"는 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변명이었다. 화재가 난 곳이 없었으니 소방차를 이용했어도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이다.

결과론만 앞세운 변명은 또 다시 공분을 샀다. 일각에서는 "당시 항공구조는 종료됐지만 항공수색은 충분히 가능했던 시간이었다"며 변명을 일축하기도 했다.

구급차나 소방차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다. 이런 당연한 일을 가지고 캠페인까지 벌여야 하는 우리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캠페인으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응당 길터주기에 동참해야 한다.

막히는 도로 위에서 차들을 비집고 달리는 구급차.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필요도 없다. 그저 서둘러 길을 내주면 된다. 구급차를 이용하는 일부 연예인 따위에 관심을 둘 이유도 없다. 우리에게는 서둘러 병원으로 가야 하는, 단 한 명의 환자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 뉴스팀 차장 junior@

객석

바느질하는 아내



신 현 복
한라 홍보부장

덜커덩 드르르르륵
광막한 도심 대기의 창 너머로
마지막 전철 박음질 마감하는 소리 들린다
새벽부터 실을 골라 몸에 감았을
아내의 바느질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작문에 수학 정해에 벌써 맨투맨까지
책갈피 속에서 온종일 낑낑대고 있는 큰 녀석
책가방에 신발주머니에 학력평가지
신발장 위 축구공처럼
바짝 쪼그라져 있는 작은 녀석
아내는
풀죽은 눈빛들을 미소로 끌어안으며
어린 그 가슴 먼저 기웠을 게다

바느질이 끝나지 않은 아내의 어깨 너머
끝 무뎌진 커다란 대바늘로
서울을 깁고 있는 남산이 보인다

꽃 지고 잎사귀 말라가는 시절이 안쓰러워
차마 나는 밑단 풀린 속 보이지 못하고
실타래 수북한 화장대 옆에
때묻은 작업복 슬며시 눕혀 놓는데



반짝이는 순금 바늘 아내가
사랑의 실 길게 끌며 구멍난
내게로 온다

기자의 눈

자살보험금 논란, 원칙이 먼저다



이 재 현
금융시장부/nfs0118@

최근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결정과 관련해 보험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자살 보험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2010년 4월 이전 생보사들이 보험상품을 팔면서 실수로 보험 약관을 잘못 만들어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놓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새 약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 표준약관의 문구인 '자살한 경우는 그러지(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빼먹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잘못된 약관은 보험사 책임이며 자살도 재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리면 생보사들은 최대 1조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만약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보험사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만약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자살 조장'이라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파장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보사들의 주장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약관이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약관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된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약관에 준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험사다.

약관대로라는 원칙을 지키는 보험사들이 정작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할 때 약관은 잘못됐지만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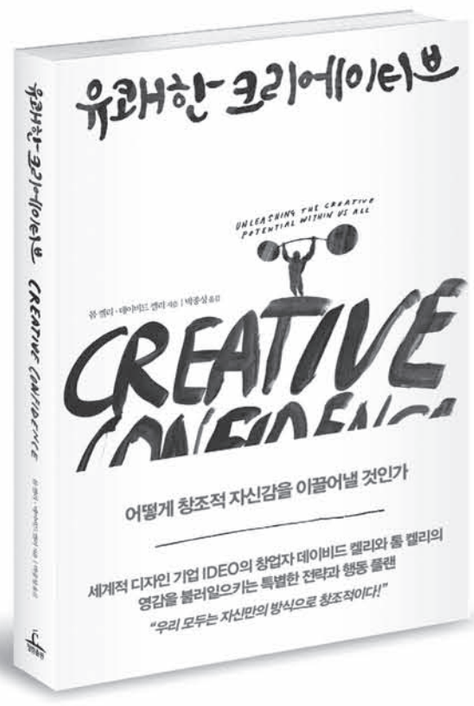
발행인 · 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정치경제부 (02)799-2655 시장부 (02)799-2658 금융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사회생활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국제경제부 (02)799-2650 사진팀 (02)799-263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어떻게 창조적 자신감을 이끌어낼 것인가?"





세계적 디자인 기업 IDEO 창업자가 전하는 영감을 주는 전략과 행동 플랜

누구나 유치원 시절에는 창조적이었다. 실패, 판단, 시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창조와 혁신의 대가인 저자들은 IDEO와 스탠퍼드대 디자인연구소인 d스쿨에서 경험한 혁신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안의 창조적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보여준다. 디자이너, 화가, 소설가 등 특별한 사람들만이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신만의 창조성을 발휘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한다. 스스로가 창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생각의 도구를 전수하는 책.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톰 켈리·데이비드 켈리 지음 | 박종성 옮김 | 17,000원



데이비드 켈리David Kelley 세계적 디자인 기업 IDEO의 창업자이자 회장. 스탠퍼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디자인연구소인 'd스쿨'd.school을 개설해 창조성과 디자인적 사고를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보잉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1978년에 IDEO를 공동 창업했다. 이후 애플 최초 컴퓨터 마우스와 세계 최초 노트북 컴퓨터 등 수많은 제품의 창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톰 켈리Tom Kelley IDEO의 파트너로 창업자인 데이비드 켈리의 동생이다. 베스트셀러 《유쾌한 이노베이션》과 《이노베이터의 10가지 얼굴》의 저자이기도 하다. HR 컨설팅회사 타워스페린과 제너럴일렉트릭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이후 IDEO로 옮겨 마케팅, 경영개발, 스토리텔링 분야를 총괄하며 회사를 키워나갔으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TEL 02-546-4341| FAX 02-546-8053 | www.chungrim.com 청림출판

"아시아 대륙 출발지 한국 널리 알렸죠"

348일간 유라시아 대장정 마친 울산 '빼빼가족'
작년 6월 출발… 온가족 미니버스로 24개국 여행
매일 200㎞씩 이동… "북한 통과 못한 것 아쉬워"


348일간의 유라시아 24개국 종주에 성공한 빼빼가족은 16일 속초항을 통해 귀국한다. 러시아 자루비노에서 포즈를 취한 빼빼가족. 연합뉴스

울산 '빼빼가족'이 1년에 걸친 유라시아 24개국 버스 종주를 마치고 러시아를 떠나 16일 속초항을 통해 귀국한다.

주인공 가족은 울산시 울주군 최동익(50)씨와 아내 박미진(46·주부)씨, 딸 다윤(19·고2 휴학)양, 아들 진영(17·중3 휴학)군, 막내 진우(16·중2 휴학)군.

'빼빼'는 가족 모두 몸이 말라 붙여진 이름이다. 최씨 가족은 지난해 6월 7일 울산 간절곶에서 출발해 유럽의 서쪽 끝 포르투갈 호카곶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여행을 시작했다.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고 딸과 아들은 휴학하는 등 여행 준비에 3년이 걸렸다. 유라시아 대륙을 종주한 한국인은 최씨 가족이 처음. 최씨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아시아와 유럽에 알리고, 가족을 위해 여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 가족은 미니버스를 타고 속초항으로 이동한 뒤 러시아로 건너가 핀란드~스웨덴~덴마크~독일~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호카곶에 다다랐다. 돌아오는 길에는 스페인~이탈리아~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세르비아~불가리아~터키~이란~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몽골~중국~러시아를 거쳤다.

아시아의 동쪽 끝인 울산 간절곶 해안에서 출발해 유럽의 서쪽 끝 포르투갈 호카곶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으로 미니버스로 매일 200㎞를 이동했다.

최씨는 "시베리아의 광활한 자연, 유럽의 역사적 도시, 중동의 이국적 종교와 문화, 중앙아시아 초원, 거대한 몽골과 중국을 보았다"며 "차가 고장 나거나 수렁에 빠지고, 프랑스에서는 여권과 현금을 도둑맞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족의 힘과 주변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그는 "여행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아시안하이웨이로 연결된 북한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며 "앞으로 버스로 가족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려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영관 기자 kwan@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 카자흐스탄인 오네게 씨

"한국서 아나운서 되고 싶어요"

사물놀이 장구 소리에 매료
올 경희대 국제교육원 입학



"한국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제17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쥔 압사득 오네게(20·사진)씨의 포부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그는 전 세계 38개국 1232명이 지원한 이번 대회에서 본선에 오른 경쟁자 14명을 물리치고 대상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심사위원들이 그 어느 해보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토로할 정도로 이번 참가자들의 실력이 쟁쟁한 가운데, 그는 웅변을 하듯 당찬 어조와 똑똑한 발음으로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후한 점수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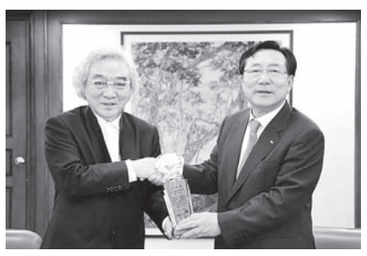
'독특한 한국 문화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인들이 술 마실 때 '술 먹이기 게임'을 하는 문화 덕분에 친구도 사귀고 한국인들과 쉽게 어울리게 됐다고 소개해 청중의 호응을 끌어냈다. 지난 3월 경희대 국제교육원에 입학하며 한국 땅을 밟은 그는 이슬람교인이어서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지만, 여행 동아리에 가입해 단체로 여행을 갈 때마다 이런 독특한 술 문화를 접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낼 뿐만 아니라 한국어 어휘 실력도 늘게 됐다"고 자랑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됐는지 묻자 그는 "한국 노래를 수없이 들으며 한국어를 배웠다"고 했다.

그가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카자흐스탄-한국 우정 콘서트'에 갔다가 사물놀이 공연의 장구 소리에 매료되면서부터였다.

2년 뒤 한국의 아이돌그룹 엑소(EXO)에 빠져 한국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체 선발 인원인 두 명 중 한 명으로 뽑혀 한국에 오게 됐다.

한편 제17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경희대 국제교육원과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예술의전당서 감사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5일 예술의전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은 이날 중기중앙회를 직접 방문, 중소기업계가 예술의전당 세계 음악분수의 음향장비를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김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중소기업계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빈곤국가 어린이 돕겠다" 경기 LX지적공사 옷 기부

LX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는 환경부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인 '옷캔'에 근무복 및 의류 3000여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부물품은 900여명의 경기본부 및 지사 직원들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저개발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안 입고 있는 의복들을 2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수집한 것이다. 이번에 기부한 옷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빈곤국가에 보내져 바자회를 통해 판매되며 수익금은 제3세계 어린이들의 미술교육 및 미술용품 후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종만 LX 경기본부장은 "앞으로도 사랑 나눔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외 물품 기증을 지원하고 경기본부 외에 다른 지역본부에서도 나눔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권오준 '현장경영'… 50일간 소통 콘서트

오는 22일 시작 7월 초까지 19차례 'IP 콘서트'
임직원들과 자유롭게 비전·경영철학 나누기로



권오준〈사진〉 포스코 회장의 현장 소통 경영이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포스코에 따르면 권 회장은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포항·광양제철소,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등에서 포스코 직원들과 만나 회사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IP 콘서트'를 가진다.

IP는 '이노베이션 포스코(Innovation POSCO)'의 약자로 혁신 포스코 1.0 체제를 통해 '위대한 포스코를 창조하자'는 권 회장의 경영철학이 담겼다.

권 회장은 IP콘서트를 통해 임직원들과 회사의 경영철학과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권 회장은 지난 3월 포항제철소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직원들과 직접 인사하며 소통 경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엠텍,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등 계열사 근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달에는 올해 임원으로 승진한 포스코와 계열사 여성 임원 7명과 도시락 오찬도 가졌다.

권 회장의 소통 행보는 해외사업장에도 미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동남아 최초 일관제철소 크라카타우포스코 현장을 둘러보고 기술사로 찾아가 파견 직원들과 만났다. 이후 태국 타이녹스, 미얀마 대우인터내셔널 등에도 들러 직원들을 격려했다.

권 회장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기업설명회(IR)에도 모습을 나타낼 예정이다. 포스코 회장이 연초 열리는 최고경영자(CEO) 포럼을 제외하고 애널리스트 등과 직접 만나 기업의 중장기 계획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권 회장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강조하는 경영철학을 강조했다"며 "현장경영을 중시하는 것도 이 같은 신념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양평군 초청 투어 나선 홍콩 언론인들

"아름다운 자연 속 딸기체험 반했죠"


홍콩 언론인이 딸기농장에서 즐거워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일보

홍콩 언론인들이 양평을 찾아 여행을 하며 최고의 호평을 했다.

16일 경기일보(허행윤 기자 heohy@)에 따르면 최근 양평군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홍콩 언론인들을 초청해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언론인은 오리엔탈 선데이의 탄원롱(譚文龍) 기자(37), 넥스트 메거진(Next Magagine)의 관진먼(關錦雯) 기자(29·여)와 싱타오 데일리의 천수이(陳淑儀) 기자(40·여) 등 홍콩의 내로라하는 언론사 중견 남녀 기자 10명이다.

이들은 물 맑은 고장 양평에 대한 호기심 반, 궁금증 반에 언론인 특유의 확인 본능으로 이곳을 찾았다. 이들은 새벽부터 양평군 용문면의 경기영어마을과 레일바이크와 용문산 국민관광지, 옥천면 용천리 드라마 및 영화 촬영지 등지에 대한 투어에 나섰다. 이처럼 해외 언론인들이 양평을 찾은 건 전국 기초 자치단체로는 처음 있는 일.

양평의 한 딸기농장을 찾은 홍콩 이코노믹 타임스의 조우치링(周翠玲) 기자는 "양평은 풍광도 아름답지만 이처럼 싱싱한 딸기를 직접 따고 먹을 수 있어 행복하다"며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평군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외국의 중견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투어를 시행한 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지구촌에 양평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美 원주민 출신 첫 연방판사 탄생

다이앤 후미티와 신임 애리조나 연방 판사 인준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첫 연방판사가 미국에서 배출됐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지역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상원은 이날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다이앤 후미티와(50·사진)를 신임 애리조나 연방 판사로 인준했다.

미국 전역에 연방 판사는 860여명에 불과하다. 연방 상원 출석 의원 96명 전원이 후미티와에 대한 인준 표결에서 전원 찬성했다.

후미티와는 애리조나주에서 연방 검사로 일했고 아메리카 원주민 호피족 자치법원 판사로도 복무하기도 했다.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후미티와의 연방 판사 인준을 크게 환영했다. 원주민 자치의회 한 관계자는 "후미티와가 아메리카 원주민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를 한 인물"이라고 칭송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美 여고생, 3선 도전 하원의원 꺾었다

17세 새러 블레어 예비경선 승리… 올 11월 중간선거 공화당 후보로



3선에 도전하는 미국 현직 하원의원을 만 17세 여고생이 당내 예비경선에서 물리쳐 화제가 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달 말 웨스트버지니아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새러 블레어〈사진〉는 13일 웨스트버지니아 59선거구(마티스버그)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예비경선에서 래리 검프 현역의원을 872 대 729로 이겼다. 3선을 노린 컴프 의원은 의외의 패배로 쓸쓸히 물러났다.

예비경선에서 승리한 블레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래인 디엘과 맞붙게 된다. 현지언론들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밋 롬니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적이 있어 블레어의 당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블레어는 '다양성의 상징'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등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성향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 관계자는 "고교생이 중진 의원을 이기는 이변이 연출된 것은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인사

◆대한석탄공사〈선임〉 ◇본사 △감사실장 전종득 △생산안전실장 황복영 △장성광업소장 안상정 △화순광업소장 남승우 △기획조정실장 도인식 △경영지원실장 원종선 △기획조정실 기획전략팀장 김동환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안동선 △기획조정실 성과평가팀장 최용숙 △재무관리팀장 최영애 △고객지원팀장 김한수 △기술지원팀장 장순관 △사업개발팀장 신재면 △노사협력팀장 장헌순 △감사실 부장감사 신영윤 △감사실 부장감사 이현재 △감사실 부장감사 조광일 △경영지원실 홍보부장 최종민 ◇장성광업소 △부소장 심순희 △기획부장 이기재 △품질관리부장 김성문 △공무부장 안문일 △장성생산부 부장 송영배 △철암생산부 부장 박일태 △중앙생산부 부장 오대현 △안전감독부 부장 최광식 ◇도계광업소 △부소장 김흥찬 △총무관리부장 최흥순 △도계생산부장 임봉빈 △안전감독부장 이기민 △동덕생산부장 이준형 ◇화순광업소 △부소장 박연규 △총무관리부장 박성남 △기획부장 구태홍 △복암생산부장 김기범

◆트러스톤자산운용 ◇신규 △운용부문부 최고운용책임자(CIO) 상무 조병준 △리서치본부 본부장 및 리서치부문 CIO 상무 오세진

◆강원일보 ◇편집국 승진 △동해주재 부국장직대 박영창 △고성주재 부국장직대 정래석 △평창주재 부국장직대 정익기 △삼척주재 부국장직대 황만진 △횡성주재 부국장직대 유학렬 △편집부 차장직대 김선영 △정치부 차장직대 이성현 △서울주재 차장직대 민왕기 △원주주재 차장직대 원상호 ◇총무국 승진 △필립출력팀 부국장직대 박준선 ◇광고마케팅국 승진 △디지털미디어부 차장직대 김명기

부음

▲김지원(삼성자산운용 커뮤니케이션팀 과장)·은영(개인사업)씨 부친상 = 15일 오전 10시, 서울시보라매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02-841-7652

▲박종민(한국생산성본부 제조혁신추진센터장)·종국(GS건설 상무)·일섬·순섬·남섬씨 부친상 = 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장지 이천 호국원, 02-2227-7569

▲홍성돈(현대건설 석문국가산단 현장소장)·성필(한국스포츠 편집국장)씨 부친상, 박윤재(사업)·이인철(부천 오정초교교장)씨 장인상 = 15일 낮 12시, 고대 안암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02-923-4442

▲홍순주(드림테크 회장)씨 장모상 = 15일 오전 2시 5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5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2-3010-20

▲김원동(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대표이사)씨 부친상 = 15일 오전 7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2-3010-2000

▲정환상(클라라윤 대표)씨 별세, 인기(푸스인터내셔날 대표)·승기(㈜LF 상무)·승진·유진씨 부친상 = 14일 오후 5시, 서울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02-2019-4003

한국인 안방서 웃음을 비비다

Cover Story

방송 주름잡는 외국인들

전남 완도 김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며 자랑하는 가나 출신 샘 오취리, 홍어 삼합 맛을 알았다고 말하는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 감기 걸릴 때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 먹어야 한다는 호주 출신 샘 해밍턴, 태권도가 좋아 한국에 왔다는 프랑스인 파비앙. 지난 8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의 '코리안 드림편' 외국인 연예인 및 방송인 출연자다. 이날 방송은 요즘 TV에 넘쳐나는 외국인 출연자들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사진 왼쪽부터 로버트 할리, 줄리엔강, 후지이 미나, 브로닌, 파비앙, 샘 해밍턴, 샘 오취리, 크리스티나, 이다도시, 사유리.

'진짜 사나이' 샘 해밍턴 "뚝배기 하실래예" 로버트 할리…
거주 외국인·다문화 가정 증가·미디어도 글로벌화 가속
명절특집 '게스트'서 드라마·예능·CF 속 '핵심멤버'로

MBC '일밤-진짜 사나이', tvN드라마 '꽃할배 수사대'에 고정 출연하는 샘 해밍턴, '나 혼자 산다'에 나오고 있는 파비앙, tvN 시트콤 '감자별 2013QR3'의 일본인 후지이 미나, KBS '비타민'에서부터 MBC '세바퀴'까지 종횡무진 하는 일본인 사유리, 각종 교양 프로그램과 예능프로그램 리포터와 게스트로 등장하는 남아공 출신의 브로닌…. 요즘 KBS, MBC, SBS 등 지상파뿐만 아니라 tvN 등 케이블 방송, JTBC 등 종합편성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 CF에 외국인 출연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1980~1990년대 외국인들은 설이나 추석 특집으로 마련된 외국인 장기자랑 프로그램에 나선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TV만 켜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더 이상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 1회성 게스트나 드라마의 카메오 혹은 감초 캐릭터가 아니다. 고정출연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주연이나 조연 등 비중 있는 캐릭터를 맡아 TV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외국인들이 TV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1980~1990년대 EBS를 비롯한 TV 외국어 회화 프로그램이었다. 외국어 회화 프로그램에 강사로 외국인들이 나서고 이들이 시청자에게 눈길을 끌면서 교양과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또한 드라마 혹은 재연 프로그램에 단역이나 카메오, 재연배우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TV에서 외국인의 모습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프랑스 이다도시,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참, 미국 변호사 출신의 로버트 할리 등이 1990년대 중후반 들어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 나서며 외국인 TV 출연 기폭제 역할을 했다. 드라마 연기자로는 일본의 후에키 유코(한국명 유민)가 2001년 MBC 드라마 '우리집'에 출연하면서부터 외국인 연기자들의 안방극장 출연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의 TV 출연이 특별한 모습이 아닌 일상의 모습으로 자리잡는 결정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방송된 KBS 2TV의 '미녀들의 수다'다. 영국 에바, 중국 손요, 이탈리아 크리스티나, 핀란드 따루, 러시아 라리사, 베트남 하이옌 등 16명의 외국인 여성 패널이 남희석의 진행으로 특정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이 프로그램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 출연 프로그램이 봇물을 이뤘고, '미수다' 외국인 패널들이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드라마 출연을 본격화했다. 심지어 개그 프로그램에도 외국인 진출이 이뤄졌다. 지난 2005년 샘 해밍턴이 KBS '개그 콘서트'에 고정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TV의 각종 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외국인 출연자의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처럼 TV에 넘쳐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급증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다. 2013년 1월 현재 144만5631명에 달하고 혼인 귀화자 7만519명 등 외국인 배우자는 22만명에 이를 정도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달라졌고 TV제작진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작하게 됐다. 또한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 해외여행과 유학, 이민, 외국 근무 증가 등으로 급속히 전개된 글로벌화 역시 TV의 외국인 출연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1990년대 중후반 일기 시작한 한류로 인해 외국 연기자를 비롯한 외국인의 한국 TV 출연이 가속화됐다.

외국인의 TV 출연에 대해 시청자들도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다. 리서치 전문회사 엠브레인이 10대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출연자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8%가 외국인 출연자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외국인 TV 출연은 프로그램 및 방송 소재의 다양화, 외국문화의 이해 증진, 새로운 출연자 폭의 확대, 리얼리티 배가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하지만 외국인의 희화화 소재로의 전락, 연기력 부족의 외국인 출연으로 인한 완성도 추락 등 적지 않은 문제도 표출되고 있다.

배국남 기자 knbae@
일러스트 사유진 기자 yjsa2018 @

커버스토리 18·1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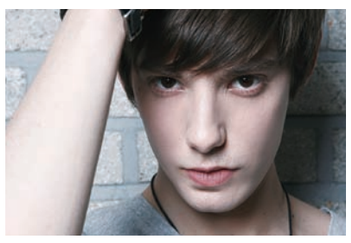
‘구멍병사’ 샘… ‘만능’ 줄리엔… ‘4차원’ 사유리 상한가

인 터 뷰 프랑스 모델 출신 연기자 파비앙

“한국이 너무 좋아 눌러 앉았죠”

“한국이 너무 좋아서 왔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훤칠한 키(182cm)와 또렷한 이목구비, 꽃미남 같은 외모로 대중의 시선을 끄는 외국인이 있다. 한국말도 꽤 잘한다. 최근 예능프로그램에 속속 등장해 프랑스 꽃청년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그는 바로 프랑스 모델 출신 파비앙(26)이다.



3개월 여행 왔다 매력에 푹 빠져
정착 위해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제중원’‘닥터진’ 활발한 연기활동
최근 ‘나 혼자 산다’서 예능감 뽐내

파비앙은 지난 2007년 약 3개월간의 한국여행을 통해 한국에 매료됐고, 2008년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살기 위해 다시 왔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 한국문화와 음악 등을 접하게 됐고, 관심이 생겼다”며 “3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돼 다시 오게 됐다”고 한국에 정착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파비앙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언어의 장벽도 쉽게 허물어뜨렸다. 그는 “한국어는 어렵긴 했지만 힘들지 않았다. 재미있게 배웠다”며 “혼자 공부하기도 하고 한국 학생과 언어교환 스터디를 했다. 이화여대 어학당도 다녔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서 아역배우와 모델 활동을 해온 파비앙는 한국에서 연기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극단에 들어갔다. 약 2년간(2009~2011년) 극단생활을 통해 한국 문화와 풍습 등을 익혀 나갔다. 그는 드라마 ‘제중원’(2010)을 통해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더킹 투하츠’(2012), ‘닥터진’(2012) 등에도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다.

최근에 파비앙은 ‘나 혼자 산다’에서 무지개모임 최초 글로벌 회원으로 남다른 예능감과 수준급 요리 실력으로 폭풍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는 “예능프로그램은 어렵다. 모국어가 아니니까 문법과 발음을 신경써야 하고 말조심도 해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것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예능 초보의 면모를 드러냈다.

김민정 기자 mj_kim@



요즘 가장 핫한 외국인 스타는

외국인 스타들이 방송가 대세로 떠올랐다. 외국인 스타들은 국적 불문하고 TV 속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시청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도 극중 캐릭터를 완벽 소화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낸다. 요즘 방송가를 주름잡는 외국인 스타는 누가 있을까.

샘 해밍턴



‘진짜사나이’서 좌충우돌 군대 체험
종편·케이블서도 종횡무진 맹활약
TV CF 9개나… 광고계까지 접수

줄리엔 강



191cm 큰 키·반듯한 외모로 주목
연기·예능… 다방면서 두각 드러내
‘우리동네 예체능’ 운동실력 발휘도

사유리



KBS ‘미녀들의 수다’로 방송 입문
거침없는 입담·돌발행동 ‘엉뚱 매력’
‘집밥의 여왕’서 숨겨진 여성미 발산

최근 가장 핫한 외국인 스타는 샘 해밍턴이다. 호주 출신 샘 해밍턴은 지난해 MBC ‘일밤-진짜사나이’에서 구멍병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엉뚱한 매력으로 시청자를 매료시켰다. 낯선 군대식 용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헤매기도 하고 고된 훈련으로 눈물, 콧물 쏟으며 보호본능을 자극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며 예능계의 대표 외국인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그는 MBC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종편, 케이블 등을 종횡무진하며 적재적소에 등장해 웃음을 안기는가 하면 LG유플러스, 청정원, 롯데제과, 비자카드, 한화생명, 배스킨라빈스 등 한 해에 약 9개의 TV CF를 찍었다. 샘 해밍턴은 KBS 특채 개그맨으로 ‘개그콘서트’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샘 해밍턴의 바통은 헨리가 이어 받았다. 중국계 캐나다인 헨리는 ‘진짜 사나이’ 새 멤버로 합류해 천진난만한 순수 청년 매력을 드러내며 예능계의 샛별로 떠올랐다. 한국 군대문화의 적응기 이면에선 음악천재라 불릴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며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헨리는 2008년 슈퍼주니어-M의 멤버로 데뷔했다. 그는 홍콩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영어와 중국어, 광둥어,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6개 국어가 능통한 엄친아로 알려졌다.

줄리엔 강은 다방면에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연기면 연기, 예능이면 예능 못 하는 게 없다’고 말할 정도다. 훤칠한 키와 뚜렷한 이목구비도 한몫한다. 그는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로 캐나다와 프랑스 이중국적 소유자다. 그는 최근 ‘우리동네 예체능’ 농구편에 출연해 우월한 키(191cm)로 센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다수의 농구팀을 단번에 제압해 화려한 농구 실력을 뽐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남다른 한국 사랑의 면면도 볼 수 있었다. ‘2014 소치올림픽’ 당시 러시아를 찾은 줄리엔 강은 태극기를 거꾸로 든 한 남성을 발견하고 “NO”를 외치며 바로잡아 주는 모습이 포착돼 개념청년으로 등극했다. 태권도편에서는 “원조 나라인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다”며 “격투기는 많이 해봤지만 태권도는 처음이다. 기술이 달라서 열심히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열정을 보였다. 이밖에도 줄리엔 강은 현재 출연 중인 시트콤 ‘감자별 2013QR3’을 비롯해 예능프로그램 ‘파이널 어트벤처’(2013), ‘우리 결혼했어요’(2012), 드라마 ‘굿바이 마눌’(2012), ‘아름다운 그대에게’(2012) 등에서 맹활약했다.

사차원의 아이콘 사유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한 매력으로 시청자에게 예상치 못한 신선한 웃음을 안겼다. 일본의 동화작가이자 방송인이었던 사유리는 KBS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한국 방송계에 입문했다. 최근 출연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클라라와 가슴을 비교하는 폭탄 발언과 가슴에 손을 넣어 휴지를 빼내는 돌발 행동으로 거침없는 매력을 드러내는가 하면 ‘집밥의 여왕’에서는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자신의 집을 공개해 여성스럽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전달해 4차원 이면에 숨겨진 여성미도 뽐냈다.

혼자 사는 남자 파비앙은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프랑스 꽃미남 청년으로 불리며 인기몰이 중이다. 그는 2007년 프랑스 파리에서 모델로 활동하던 중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여행 목적으로 3개월만 체류할 예정이었지만 드라마 ‘에덴의 동쪽’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KBS 이예지 PD는 “외국인 스타들이 방송을 함께 하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최근에는 대중이 스타의 인성과 품성에 매력을 느낀다”며 “줄리엔 강의 경우 사고가 유연한 것이 장점이다. 배려심도 깊다. 서양인의 매너와 동양인의 예의를 함께 갖추고 있다. 언어가 유창해지면 센스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는 친구”라고 평가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덤벙대고 어설프지만 '의외의 한방' 반전매력 눈길



외국인 출연자 뜨는 이유는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의 리얼 군대체험기 '진짜사나이'가 침체됐던 '일밤'의 부활을 주도했다. 그 안에서 가장 참신한 캐릭터로 주목받았던 인물은 다름 아닌 샘 해밍턴이다. 호주에서 온 푸른 눈의 샘 해밍턴은 군대에서 누구보다 한국적으로 적응했고, 꾸밈없는 멘트와 태도로 시청자의 호평을 이끌었다. '진짜사나이'에서 샘 해밍턴의 '순진무구'한 매력을 이어 받은 '구멍병사' 역시 외국인 스타 헨리다.

헨리, 어눌한 행동…당찬 개인기 히트
다니엘 헤니 등 이국적 외모로 주목
로버트 할리의 구수한 사투리 친근감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M 출신으로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냈던 헨리는 홍콩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스타다. 헨리는 '진짜사나이'에서 극도로 치달은 순수함을 바탕으로 수학, 바이올린 실력 등 예상치 못한 반전 매력을 보여주며 단숨에 주역으로 올라섰다. '진짜사나이'에서 샘 해밍턴과 헨리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전문가들은 규제화된 한국 군대의 환경과 순진무구한 외국인 스타의 가치관이 접목된 결과로 보고 있다.

김지호 대중문화평론가는 "외국인 스타는 어눌한 한국말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스타보다 한국 문화에 서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성실한 태도만 반영된다면 그 순수함은 예능에서 최고의 무기로 작용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스타의 외모 또한 새로움을 요구하는 방송계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

다니엘 헤니는 이국적이면서도 동양적인 외모로 잘생긴 스타의 대명사가 됐고,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연기자로 자리를 잡았다. 다니엘 헤니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왕따를 당했다. 미국에서는 동양인 취급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며 힘든 시절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연예계에서는 그런 '다름'이 최고의 매력으로 작용했다.

SBS '정글의 법칙', '오 마이 베이비'에서 활약한 리키김과 MBC '나 혼자 산다'의 파비앙,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의 줄리엔 강 역시 잘생긴 서구적 외모로 주목받은 선두 주자다.

SBS 백정렬 CP는 "리키김은 할리우드 배우 같은 외모에 한국어까지 유창하다. 여기에 한국을 존중하는 깊은 마음도 방송을 통해 충분히 어필되고 있다. 국내 스타와 다른 메리트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외국인의 모습으로 지극히 한국적인 언어, 행동으로 주목받은 스타도 있다. 로버트 할리는 "한 뚝배기 하실래예~"라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유행어로 친근함을 어필했다. 경상도 사람보다 더 경상도 사람 같은 사투리는 로버트 할리의 이국적 외모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그를 스타 반열에 올렸다.

이 외에도 프랑스에서 온 이다도시, '미녀들의 수다'에서 활약한 이탈리아 출신의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일본의 사유리 등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매력으로 사랑을 받았다.

연예계 관계자는 "5살 때부터 태권도를 한 파비앙의 경우처럼 이들 외국인 스타들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국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이 방송을 통해 잘 반영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sun@

'진짜사나이' 헨리 효과… 시청률 상승 톡톡

일요일 경쟁프로 제치고 나홀로 질주

지난 2월 MBC '일밤'의 리얼 군대체험기 '진짜사나이'는 시청률 상승효과를 경험했다.

'진짜사나이'는 2월 16일 16.2%(이하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 전주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동시간대 경쟁작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과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이 시청률 하락 속 나홀로 상승으로 더욱 주목받았다.

당시 '진짜사나이' 방송분은 새롭게 합류한 슈퍼주니어M 멤버 헨리의 모습을 공개했다. 캐나다 국적의 중국계 헨리는 시청률 상승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천진난만하게 입소하는 모습부터 해맑게 조교를 대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은 외국인 스타였기에 가능했다.

앞서 '진짜사나이'의 시청률 견인차도 호주에서 온 샘 해밍턴의 공이 컸다는 분석이다. 샘 해밍턴은 '구멍병사'의 이미지로 한국 군대에 적응했고, 외국인이란 점은 그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진짜사나이'는 시청률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일밤'의 부활을 이끌었고, 한때 '아빠 어디가'의 아성도 무너뜨렸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외국인' 로버트 할리, 샘 해밍턴, 샘 오취리, 파비앙이 특별출연한 KBS 2TV '해피투게더3'의 8일 방송분은 시청률 7.5%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전 방송분인 4월 10일 방송분 6.5%보다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최두선 기자 sun@

예능PD들의 시선

"어디로 튈지 몰라 더 끌린다"

어눌한 한국말의 외국인 스타들이 방송가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안방극장, 스크린에서 감초 연기로 활약하던 외국인 스타들이 예능계에 진출하며 신선한 웃음을 주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MBC '일밤-진짜사나이' 샘 해밍턴, 헨리, SBS '정글의 법칙', '오 마이 베이비'에서 활약한 리키김, MBC '나 혼자 산다'의 파비앙,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줄리엔 강 등 곳곳에 배치된 국적 다른 스타들이 시청자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진짜사나이' 김민종 PD는 샘 해밍턴에 이어 예능 샛별로 주목받고 있는 헨리의 섭외 이유에 대해 "자유분방한 매력"이라고 답하며 "헨리의 경우 주변에서 캐스팅 추천을 많이 했다. 실제 만나서 인터뷰해 보니 한국 군대에 대해 정말 모르더라. 그 점에 끌려 섭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BC 이동희 PD

한국문화 잘몰라 거침없어
자유분방함에 시청자 환호

실제 MBC '무릎팍도사', '다큐스페셜-1억년 뿔공룡의 비밀', tvN '섬마을 쌤' 제작진은 샘 해밍턴을 섭외한 이유로 '의외성'을 꼽았다.

MBC 이동희 PD는 "'라디오스타'에 샘 해밍턴이 출연한 것을 보고, 샘 해밍턴이 하면 무엇을 해도 될 것 같았다"고 밝혔고, '진짜사나이' 제작진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 이야기나 군대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며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섭외 당시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오! 마이 베이비' 배성우 PD는 리키김의 중간 합류에 대해 "기존 부부에게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매력을 기대했다"며, "현재 리키김 부부의 거침없는 애정행각(?)이 시청자의 환호를 일으키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외국인 스타라고 해서 유독 스킨십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특유의 자연스럽고, 친화적 매력을 어필하는 방식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sun@





배국남의 ★타성공학

⑭ 배우 성동일

'미친 존재감' '주연을 능가하는 조연' '부족한 연기력의 주연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연기자' '예능인마저 웃기는 연기자'…. 그에 대한 찬사의 수식어가 끝이 없다. 조연과 주연을 번갈아 가며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오가며 시청자와 관객의 호평을 받고 있다. 바로 성동일(47)이다.

빨간 양말의 '미존'
미친 존재감
명품 조연의 '원조'

1999년 '은실이'로 데뷔 8년만에 반짝
다시 대중의 시선서 멀어져 갔지만
무명시절의 헝그리 정신 잊지 않고
단역·조연 마다치 않고 캐릭터로 승부
누구와도 환상호흡… 완성도 높여줘
"돈 받는 만큼 연기한다" 완벽한 프로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스타로 떠오른 성동일을 보면서 떠오른 풍경 하나가 있다. 바로 세상에 연기자 '성동일'이라는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킨 드라마 '은실이' 종영 파티장이다. 1999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던 '은실이' 종영 파티장에는 이금림 작가, 성준기 PD, 박근형, 김원희, 이경영, 전혜진 등 연기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이가 바로 성동일이다. 1991년 SBS 1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단역 등 무명생활을 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은실이'를 통해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빨간 양말을 신고 질펀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아따 영숙씨~"를 외치던 양정팔 역으로 단번에 무명의 설움을 날렸다. "수고하셨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라고 말을 건네자 성동일은 기자의 찬사가 낯선 듯 쑥스러워하며 "예,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양정팔 역이 강렬했던 탓인지 이후 캐릭터 변신을 꾀했으나 시청자의 반응을 얻지 못했다. 점차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듯했지만 성동일은 단역과 조연 연기를 가리지 않고 캐릭터로 승부하는 연기를 펼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장면을 나와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미친 존재감의 연기자로 자리 잡았다. 성동일은 치열한 노력과 땀으로 캐릭터의 변신과 확장을 거듭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동일표 캐릭터를 창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기자는 출연료를 받기에 죽을 힘으로 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연기자는 연기가 생계수단이기 때문이다.", "돈 받은 만큼만 연기한다." 이 말에는 성동일의 오늘의 성공 비결이 담겨 있다. 가난한 시절 연극을 했고 탤런트가 됐지만 8년 동안 힘겨운 생활을 하면서 성동일에게는 헝그리 정신이 몸에 뱄다. 악착같이 드라마와 영화 연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 교양 프로그램 MC를 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선 한 번의 게스트 출연을 해도 온몸을 던져 웃음을 주려고 땀을 흘렸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성동일에게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헝그리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헝그리 정신과 더불어 연기자가 연기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연기에 임해야 한다는 프로 정신이 성동일의 성공신화를 일군 밑거름이 됐다. 성동일은 영화 '국가대표' '미스터고' '수상한 그녀'와 드라마 '뉴하트' '추노' '내여자친구는 구미호' '응답하라 1997,1994' '갑동이' 등 그가 연기자로서 명성과 인기를 얻은 후 출연한 작품에서도 철저한 프로 정신과 헝그리 정신을 잃지 않고 연기에 임했다.

이 때문에 성동일은 어떤 배역을 맡겨도 시청자와 관객 그리고 제작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캐릭터 소화력과 창출력 그리고 빼어난 연기력을 선보여 '믿고 보는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성동일은 무엇보다 연기자로서 성공의 가장 큰 경쟁력은 스타나 젊은 연기자 주연과의 놀라울 만한 연기 호흡이다. 특히 연기력이 떨어지는 젊은 주연을 뒷받침해주며 드라마의 완성도를 유지하는데 성동일만큼 뛰어난 연기자가 없다. 성동일은 이 때문에 존재가치가 다른 연기자에 비해 훨씬 큰 것이다. 이것이 성동일의 경쟁력 있는 무기다.

사극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김태희는 "드라마를 하면서 성동일 선배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제 부족한 연기를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줬다"고 말했다.

성동일의 연기자로서의 성공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동일은 한 번에 뜬 스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연기력으로 그리고 캐릭터로 서서히 시청자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아 쌓아올린 견고한 성공의 탑이다. 오랫동안 달궈지고 두들겨진 쇠가 오래가듯 성동일은 오랜 시간 연마한 실력으로 드라마, 영화,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동일의 성공신화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의 몸에 밴 헝그리 정신과 프로 정신 때문이다. 오늘도 그는 말한다. "돈 받은 만큼 연기한다!" 이 얼마나 프로 연기자다운 자신감인가. 대중문화전문기자 knbae@





리얼버라이어티 또하나의 스태프 '밥차'

야외촬영을 주로 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방송사마다 속속 등장하면서 밥차가 촬영장에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가 됐다. 밥차는 출연진은 물론 제작진의 든든한 끼니를 책임진다. 현재 80개 정도의 밥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밥차 업체는 20개 정도다. 지상파 방송3사의 대표 예능프로그램인 KBS '1박2일'SBS '런닝맨'MBC '사남일녀'의 밥차 운영 업체를 통해 밥차의 비밀을 밝힌다.



촬영장 이동식당의 모든 것

밥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프로그램은 KBS 간판 예능프로그램 '1박2일'이다. '1박2일'은 100여명의 스태프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데다 아침 복불복이라는 프로그램 속 미션 덕에 자연스레 밥차가 노출됐다. 1톤 트럭에 수북이 쌓여 있는 음식을 자신의 식판에 셀프로 나눠 담는 모습은 익숙한 광경이다. 1톤 트럭에는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다.

'1박2일'의 밥차는 노부부 강승민(69)·우연단(66)씨가 운영한다. '1박2일' 시즌1부터 지금까지 약 7년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촬영 출발 당일 저녁과 다음날 아침을 책임진다. 한 번에 약 130인분, 총 260분을 준비한다. 한 끼 가격은 8000원이다. '1박2일' 촬영 스태프는 "꼼꼼히 챙겨주신다. 반찬 구성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전했다.

MBC '사남일녀'는 시골집을 찾아가 약 4박 5일 동안 가족이 돼 동고동락한다. 출연진과 스태프의 끼니를 책임지는 밥차 역시 마찬가지다. '사남일녀'의 경우 녹화 전날 일부 스태프은 먼저 촬영장에 도착해 준비시간을 갖기 때문에 약 5박 6일 동안 밥차가 운영된다. 한 번 조리를 할 때 70~80인분가량을 준비, 총 800인분(5박6일, 11번 식사)의 식사를 마련한다. 요리사는 메인 요리사와 보조 요리사 단 2명이다. 식사시간 4시간 전부터 준비한다.

'1박2일' 한끼 130인분 조리
'사남일녀' 5박6일 동안 11회
재료 따라 7000~1만원 선

'가격대비 질' 식당보다 좋고
촬영 상황 맞춰 조절도 장점
주인에겐 숙박·주유비 지원

SBS '런닝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주로 1박 2일 촬영을 진행할 때 밥차가 함께 움직인다. 런닝맨은 한 번 조리할 때 250인분을 준비한다. 가격은 인당 한 끼에 7000원부터 시작한다. 10% 부가세는 별도다. 8000원, 1만원 등도 있다. 가격에 따라 재료의 질과 반찬 수가 달라진다.

제작진이 근처의 식당을 두고 밥차를 애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가격 대비 음식의 질을 높이 평가한다. 밥차의 장점은 일반 식당의 식대에 포함된 집세와 세금, 부가 비용이 재료비에 투자돼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촬영장의 다양한 변수에도 유동적이다. 굳이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촬영현장 상황에 맞게 조절해 제공 가능하다. 밥차 주인에게는 숙박과 주유비가 지원되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한다.

'사남일녀'와 '런닝맨'의 밥차를 담당하는 우리들밥차 변근섭 사장은 "밥차를 운영한 지 5~6년 정도 됐다"며 "지금은 모두 가족 같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KBS '1박2일' 화면 캡처



불륜 소재 다룬 밀회 '특급칭찬' 받은 까닭

욕망·인생·행복…멜로 이상의 메시지
극본·연출·연기 삼박자 갖춘 수작 評
마지막회 5.372%…시청률까지 잡아



드라마 '밀회'가 진한 울림과 화제를 낳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3일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밀회'의 마지막 회가 5.372%(닐슨코리아 제공, 유료 방송 가구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 유종의 미를 거두며 흥행 면에서도 성공했다. '밀회'는 완성도와 새로운 멜로의 패러다임으로 드라마의 지평을 확장시켜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20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김희애와 유아인의 로맨스로 첫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일으켰던 '밀회'에서 김희애와 유아인 두 남녀 주인공의 치명적인 교감, 이끌림, 욕망은 피아노 선율을 통해 그려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세련된 연출과 섬세한 집필 그리고 그걸 연기해 내는 연기자가 없으면 힘든 일"이라고 호평했다.

'밀회'는 MBC '하얀 거탑'을 만든 안판석 PD의 연출력과 '장미와 콩나물' 등 탄탄한 극본을 선보였던 정성주 작가의 극본이 시너지를 냈다. 제작진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치정, 불륜 그 너머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높이 평가됐다. 한국 드라마 사상 새로운 멜로 드라마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충남대 국문학과 윤석진 교수는 "타인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욕망을 구분하면서 결국 행복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다.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쇼윈도 부부, 나이 차가 크게 나는 연상연하 커플을 배치한 것이다. 불륜 자체가 아닌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가의 문제의식이 잘 표현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 교수는 "평범한 사람들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류사회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캐릭터가 보여주는 속물근성과 허위의식을 통해 또 다른 쾌감을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밀회'는 변화된 시대의 여성의 욕구와 욕망을 주체적으로 잘 드러내 여성 시청자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배국남 대중문화 평론가는 "혜원을 비롯한 '밀회'의 여성 캐릭터는 변화된 현실과 오늘을 사는 여성들의 욕구와 욕망을 잘 투영하고 남성에 의해 주도되는 기존 드라마의 러브 라인이 아닌 여성이 주체적인 멜로 관계가 여성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고 분석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창립 50년만에 첫 회계공개한 한음저협

年징수액 1250억… 1분기 256억
"투명성 강화" 제2협회 견제 의도

폐쇄적 운영으로 잡음을 일으켰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회계내역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한음저협은 1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운영과 관련한 1200억여원의 회계내역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연간 저작권 징수 예산 1250억여원 중 1~3월 '신탁회계' 징수 및 분배 실적 등이다.

한음저협의 수입은 크게 세 부분이다. 회원들의 저작권료인 '신탁회계', 여기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수료로 사무처를 운영하는 '일반회계', 협회 건물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특별회계'로 나뉜다.

이번에 협회가 공개한 회계내역에는 신탁회계의 집행내역과 그에 따른 수입 및 분배 실적,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 전 내역, 회관건립기금회계와 회원복지기금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전 집행내역 등 협회 회계 전반이 포함됐다.

공개된 회계 실적표에 따르면 1~3월 저작권료 징수액은 256억여원이고 분배액은 267억여원이었다. 한음저협은 징수액보다 분배액이 12억여원 많은 것에 대해 "12월 징수된 저작권료가 다음해 3월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분배되는 매체가 간혹 있다. 이 때문에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회계내역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협회 운영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제2음악저작권 위탁관리단체'로 지정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가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2월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작곡가 출신 윤명선 회장은 취임 당시 투명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회장은 가장 먼저 자신의 저작권료 내역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윤 회장의 저작권료 지급 내역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윤 회장의 저작권료 수입 총액은 890만여원이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공감의 무대, 상처받은 이들에 작은 위로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계셔'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계셔'
남북 군인 우정그린 동화같은 이야기

연극 '푸르른 날에'
민주화운동 속 피어난 남녀의 사랑

연극 '사랑별곡'
40대부터 80대까지 인생 애환 담아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도 이해받을 때 완성된다고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이야기한다. 5월 공연계는 국가적으로 참사를 겪고 시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한다.

질곡의 근현대사 속에서 피어난 희망, 먹고 살기 어려웠던 삶이지만 사랑을 잃지 않았던 우리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을 만나 보자.

공연장을 찾아 한 관객이 되어 무대에 선 배우와 함께 실컷 공감해보는 것도 마음 회복에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공연을 보면서 개인과 우리 사회가 힐링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4월 26일~7월 27일,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는 무거운 소재에 상상력을 더해 전쟁의 참혹함을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펼쳐낸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 4명과 함께 기상 악화로 고장 나 버린 이송선에 탄 남한 국군 대위와 그 부하는 무인도에 고립된다.

유일하게 배를 수리할 수 있는 북한 소년병 류순호는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나머지 역시 야만적으로 변해간다. 인질이 된 남한 국군 대위는 북한 소년병에게 여신의 전설을 만들어 들려준다. 여신님에 빠진 순호는 비로소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으며 배를 수리해 나간다.

'여신님'은 누군가에게는 엄마, 여동생, 사랑하는 딸, 짝사랑하는 누나다.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쉬는 '여신님'은 고난 속에서도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삶에 대한 애착과 목표를 갖게 한다. 2012년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앙코르 최우수 선정작, 국회대상 올해의 뮤지컬상을 수상했다.

차범석 희곡상 제3회 수상작인 정경진의 동명의 희곡을 밑바탕으로 한 연극 '푸르른 날에'(4월 26일~6월 8일, 서울 남산예술센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속 피어난 남녀의 사랑과 30여년 후의 인생 역정을 그려낸다. 고선웅 연출의 손을 거쳐, 자칫 무겁고 감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이야기를 경쾌하고 과장된 어법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서정주 시, 송창식의 노래로 여는 마지막 장면은 개인과 역사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기억함과 동시에 푸른 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암시한다.

'푸르른 날에'는 오는 6월 13일부터 전남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회관에서 상연된다. 고선웅 연출은 초연 이후 4년 만에 처음 5·18의 현장인 광주에서 공연된다는 점에 대해 "단순한 지방 공연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이 작품이 광주시민들에게 아직까지 응어리진 설움이 있다면 풀어주고 상처를 안고 자기와 화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5·18의 중심지에서 공연될 '푸르른 날에'는 광주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극 '연극열전5: 사랑별곡'(5월 2일~8월 3일, 서울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은 이순재, 고두심이 부부 호흡을 맞춰 눈길을 끈다.

충남 서산의 한 시골 장터를 배경으로, 삶의 고단함을 안고 사는 40대부터 죽음을 마주한 80대의 삶까지 한 작품 안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이와 더불어 인생의 깊이가 굽이치는 대사와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무대 미술이 한 편의 시처럼 애틋한 위로로 다가온다.

구태환 연출은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인생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과 화해 그리고 용서를 밑바탕으로 한 '사랑별곡'의 따뜻하고 소박한 이야기로 우리 사회의 따스함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연극 '푸르른 날에'




뮤지컬 '헤드윅'에서 트렌스젠더 헤드윅을 연기하는 배우 조승우. 사진제공 쇼노트

5人5色 '헤드윅' 그녀들이 돌아왔다
조승우·박건형·김다현 등 총출동 연기자 개성 따라 무대 무한변신

뮤지컬 '헤드윅'이 돌아왔다. 조승우, 박건형, 김다현, 송용진, 손승원이 총집합해 더욱 관심을 모은다. 이들은 암울한 동독을 탈출하기 위해 트렌스 젠더가 됐지만, 싸구려 성전환 수술 탓에 사타구니에 일인치(1inch)의 살점을 남기고 마는 인물 헤드윅으로 멀티 캐스팅됐다.

이들 배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헤드윅'이 1인 뮤지컬 형태에 가깝기 때문이다. '헤드윅'에서는 헤드윅의 남편인 이츠학 등의 주변인물도 있지만, 주인공 헤드윅의 사연으로 2시간가량의 작품 전반이 채워진다. 그래서 더욱 연기자의 개성에 따라 매회 무대의 매력이 가름된다.

청강대 뮤지컬과 이유리 교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며 찾아나가는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작품인 '헤드윅'은 배우-의존적인 작품이다. 그만큼 배우의 페이소스 연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조승우는 인물 내면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배우다. 한편 김다현은 인물 특유의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분석했다.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원종원 교수는 "헤드윅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주변인물이다. 그래서 예쁘거나 여성스러운 외모라면 인물 본질을 표현하기에 꼭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여자처럼 꾸몄지만 간혹 남자를 연상시키는 외모로서 박건형, 송용진이 가진 이미지가 작품 본질을 이해하는 데 더욱 근사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교수는 "'The Origin of Love', 'Tear Me Down' 등의 넘버가 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작품인 '헤드윅'은 음악의 힘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록 장르에 맞춤화된 발성을 구가하는 송용진의 헤드윅도 호평했다.

2005년 초연 이후 인기리에 상연돼온 '헤드윅'은 국내 버전으로는 이번 무대가 마지막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주목할 만한 공연

실화 바탕 뮤지컬 '보니앤클라이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가 눈길을 모은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실존했던 남녀 2인조 강도 보니와 클라이드의 범죄 행각과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했다. 엄기준, 샤이니 키,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 에녹, 비스트 장현승이 남주인공 클라이드 역, 가희, 오소연이 매력적인 여주인공 보니 역을 소화한다. 초연에 비해 러닝타임이 15분 단축돼 긴장감을 높였다. 4월 15일~6월 29일, 서울 BBC아트센터.

배꼽잡는 부조리극 '햄스터 살인사건'

코믹한 청소년 부조리극 '햄스터 살인사건'이 개막했다. 햄스터가 죽은 채로 발견되자, 2명의 10대와 몇 명의 어른들이 소동을 벌인다. 등장인물의 언어유희를 통해 현실과 환상이 교묘하게 섞이면서 잔인함을 웃음으로 감싼다. 시종일관 유쾌한 가운데 정곡을 찌르는 대사 안에 주제 의식이 담겨 있다. 국립극단 청소년극 릴-레이의 세 번째 작품이다. 5월 16일~5월 24일, 서울 국립극장 소극장 판.

앙코르 공연 록뮤지컬 '머더 발라드'

브로드웨이 록 뮤지컬 '머더 발라드'가 대학로 앙코르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뉴욕에 사는 탐, 사라, 마이클은 애증과 집착, 사랑의 열망으로 얽혀 있다. 파워풀한 록 장르의 넘버가 관객을 압도한다. 최재웅, 한지상, 성두섭, 강태을, 임정희, 린아, 박은미가 만나는 각기 다른 공연 회차는 다채로운 커플 호흡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펼쳐낸다. 무대 위 바(Bar)석을 배치해 관객 참여를 더하고 몰입을 꾀했다. 5월 3일~6월 29일, 서울 DCF대명문화공장.

레알 마드리드

꿈의 무대 '마드리드 더비' '빅 이어' 주인공은 누구?

AT 마드리드

'무적함대' 레알 vs 40년 만의 결승행 AT
25일 리스본서 UEFA 챔스리그 우승다툼
세계 축구팬 '호날두·코스타 맞대결' 관심



오는 25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왼쪽)와 AT마드리드의 코스타의 맞대결이 펼쳐질지 세계 축구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진짜 주인이 가려진다.

25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2013~201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하 AT마드리드)가 격돌한다. UEFA 챔피언스리그 사상 첫 연고지 라이벌전이자 2시즌 연속 동일 국가 클럽 팀(지난 시즌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간 우승 다툼이다. 국왕컵을 포함한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2승 1무 1패로 AT마드리드를 앞서 있다.

첼시(잉글랜드)를 꺾고 40년 만에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른 AT마드리드는 1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4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간판 공격수 디에구 코스타(26)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첼시에 3-1 승리를 이끌어냈다. 지난달 23일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던 AT마드리드는 1·2차전 합계 3-1로 결승행을 확정지었다.

이날 경기의 수훈감은 수문장 티보 쿠르투아(22)다. 전반 36분 첼시 페르난도 토레스(30)에게 선제골을 내주기는 했지만, 연이은 선방으로 첼시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주제 무리뉴 첼시 감독은 "상대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으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밝힐 정도다.

무엇보다 AT마드리드의 상승세가 무섭다. 챔피언스리그 진출팀 중 유일한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골키퍼 쿠르투아를 비롯한 탄탄한 수비진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8골로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 중인 디에구 코스타도 AT마드리드의 자랑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골을 만들어낼 수 있어 경계대상 1호다. 그러나 코스타는 최근 오른쪽 다리를 다쳐 당분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다.

AT마드리드는 프리메라리가 2위 바르셀로나(27승 3무 5패·승점 84)에 승점 4점 차로 선두(28승 4무 3패·승점 88)를 달리고 있어 올 시즌 두 토끼 사냥도 가능하게 됐다. 프리메라리가 우승컵이 걸린 AT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18일 새벽 1시에 열린다.

AT마드리드에 맞서는 레알 마드리드는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1·2차전 합계 5-0으로 꺾고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통산 10번째 우승을 노리는 레알 마드리드의 강점은 단연 풍부한 경험과 폭발적 득점력이다. 올 시즌 16골을 넣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는 리오넬 메시(27·바르셀로나)가 갖고 있던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넘어섰다. 팀 득점의 절반(43%) 정도를 책임진 셈이다. 나란히 5골씩을 넣은 카림 벤제마(27), 가레스 베일(25)이 옆에 있어 수비 분산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T마드리드 코스타와 레알 마드리드 호날두의 맞대결이 펼쳐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날두와 코스타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도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어 자존심 대결이 기대된다.

한편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컵 '빅 이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전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이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쏠리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지난 1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4 빅터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남자복식 8강 한국 이용대-유연성 조와 일본 엔도-하야카와 조의 경기에서 이용대가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태극라켓' 다시 잡은 이용대 세계선수권 출전

모레부터 인도 뉴델리서
유연성과 男複 정상노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가 우여곡절 끝에 태극마크를 달고 다시 코트로 돌아온다.

이용대는 18일부터 인도 뉴델리 시리포트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28회 세계남자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도핑 테스트 절차 위반으로 자격 정지를 받은 이후 약 4개월 만의 경기다.

자격 정지로 대표팀은 물론 소속팀에서도 제외돼 개인 훈련에 매진해 온 이용대와 김기정(24·삼성전기)은 각각 유연성(국군체육부대), 김사랑(삼성전기)과 짝을 이뤄 남자복식 세계 정상에 도전한다.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나서는 국가대항 단체전이다.

도핑 테스트 절차 위반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풀린 두 선수는 지난 1월 24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BWF 도핑 검사에서 소재지 보고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의 징계가 확정됐다면 두 사람은 2015년 1월까지 대회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행정적 문제로 선수들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일어난 사안임을 강조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BWF에 재심을 요구했다.

그 결과 BWF 도핑청문위원단은 재심의를 열어 지난달 14일 두 선수에 대한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BWF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지만, 최근 그 시한이 만료됐다. WADA가 항소했다면 BWF 재심이 발표된 뒤 3주 내에 이의를 재기해야 했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남자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이용대는 독일(18일), 인도(19일), 말레이시아(21일)를 상대로 경기를 치른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오상민의 스포츠 인물사



국내 첫 여성 복서로 한때 세계 11개 기구 통합 챔피언에 등극했던 김주희. 그러나 그는 기업 후원 외면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 날개를 활짝 펴지 못한 비운의 개척자다. 이투데이 DB

'금녀의 벽' 허문 세계 챔프 김주희
돈도 명예도 없이…'비운의 개척자'

프로복싱 침체·후원기업 외면
프로14년 링에 오른 건 20회뿐
타이틀 방어전도 힘들게 마련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엔 오래된 상가 건물이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이 있다. 건물 안 낡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샌드백 두드리는 소리가 귀를 자극한다. 복싱 체육관이다.

평일 저녁 7시. 체육관이 한창 붐벼야 할 시간이지만 젊은 남성 한두 명만이 샌드백을 두드리며 땀을 흘리고 있을 뿐이다. 불과 10여년 사이 인기종목에서 극심한 비인기종목으로 전락한 프로복싱의 시대적 한계를 보여준다. 서글픈 일이다.

사실 이 체육관은 한국 스포츠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 현장이다. 국내 최초 여성 복서이자 최연소 세계챔피언 김주희(28·거인체육관)의 인생 스토리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김주희는 서울 영등포 문래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1년 정문호(54) 거인체육관 관장을 만나 복싱을 배웠다. 입문 2년 만에 한국챔피언이 됐고, 1년 뒤인 2004년에는 IFBA 주니어 플레이급 세계챔피언에 올랐다. 무려 11개 기구 통합 챔피언이 될 때까지 김주희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한국인 첫 세계챔피언 김기수(1966)를 시작으로 홍수환(1974), 유제두(1975), 장정구(1983), 유명우(1985), 박종팔(1987)로 이어진 한국 프로복싱 황금기의 주인공은 전부 남성이다. 그때만 해도 복싱은 몇 안 되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김주희를 한국 여성 스포츠의 개척자라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러나 김주희에게도 넘지 못한 산이 있었다. 후원 기업의 외면이다. 김주희는 올해로 프로 데뷔 14년째이지만 링에 오른 것은 20회(18승 1무 1패 7KO승)에 불과하다. 1년에 1.67회 경기한 셈이다. 타이틀 방어전을 위해서는 약 2억원의 후원금이 필요하다. 가장 최근에 치른 타이틀 방어전(2012년 12월)에서는 약 1억5000만원을 모았지만, 나머지 5000만원은 김주희와 거인체육관에서 부담해야 했다.

그렇다면 김주희는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을까. 정문호 관장은 "김주희가 거지라면 누구도 믿지 않는다. 세계챔피언인 데다 TV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얼굴도 많이 알려졌다. 그래서 더 안 믿는다"고 말했다.

김주희가 세계챔피언이 된 2000년대 중반은 한국 프로복싱이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들던 시점이다. 따라서 김주희는 한국 여성 스포츠의 개척자로서 '금녀의 벽'을 허문 대표적 아이콘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돈도 명예도 얻지 못했다.

정문호 관장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주희 통장에 수백만원의 잔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게 전 재산이다"고 말했다. 한국 스포츠, 특히 극도로 소외된 프로복싱의 어두운 이면이다.

여성을 바라보는 온갖 편견을 깨고 한국 여성 스포츠의 개척자로 이름을 알린 김주희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친 프로복싱 인기 하락과 스폰서 난에 휩쓸려 날개를 활짝 펴지 못한 비운의 개척자다.

오상민 기자 golf5@



the Vitamin House

Mobile DAUM 비타민하우스

BerryD -tox 로 피부에 생기를 돌려주자!



Step1. 맑은 눈 – 블루베리

비타민A, 비타민C, 눈을 생각한 원료
마리골드추출물, 결명자추출물분말

Step2. 맑은 피부 – 아사이베리

비타민C, 비타민E, 피부건강을 생각한 원료
콜라겐(생선), 히알루론산

Step3. 맑은 혈관 – 아로니아

비타민C, 비타민E, 혈관을 위한 원료 사용
레몬밤추출분말, 포도씨추출물

Must Have

베리디톡 3종



지금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에서 만나보세요!

제품문의 **1588-8529**

절로 웃음이 난다, 절로 힐링이 된다



잠시 눈을 감고 나무에 몸을 맡겨 보세요.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울창한 메타세콰이어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눈이 부시게 푸른 '5월의 숲'



손을 잡고 걷는다
세상을 다 잡은 듯
그냥 지금이 좋다

눈부시게 따스한 햇살이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귓등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뜨거운 여름을 앞둔 5월 녹음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한순간도 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을 잠시 가방에 넣고 숲으로 떠나보세요.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는 잠시 잊어버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나무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켜 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하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그것뿐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숲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더욱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마음속 깊이 묻어둔 감정을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노진환 기자 myfixer@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서 더욱 좋습니다. 손을 잡고 자연을 걷다 보면 가족의 소중함에 이 계절이 더욱 눈부시게 느껴집니다.

美 경제 낙관론에도 시장지표는 오락가락

강세 기록하던 뉴욕증시 경계심리로 이틀연속 하락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올해들어 내리막길 '엇박자'
옐런 연준 의장 "초저금리 유지"… 채권에 돈 몰려

미국 채권시장이 심상치 않다. 전반적인 경기 낙관론에도 채권 금리가 급락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의 강세와 함께 채권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은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욕증시는 15일(현지시간) 이틀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1.01% 하락한 1만6446.81을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장중 200포인트 넘게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S&P500지수는 0.94%, 나스닥은 0.76% 빠졌다.

이날 증시가 하락한 것은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한 경계심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얻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bp(1bp=0.01%P) 하락한 2.50%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최저치인 2.47%까지 빠졌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값이 올랐다는 말이다.

10년물 금리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tapering)에 돌입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올랐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탔다.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 채권 금리는 일반적으로 동반 상승한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은 이같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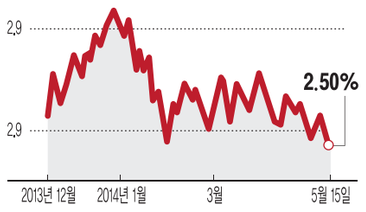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주가지수를 끌어 올리는 동시에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채권금리를 끌어내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지표를 보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청구 건수는 전주에 비해 2만4000건 감소한 29만7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 5월 이후 최저치다. 월가 전망치는 32만건이었다.

특히 물가지표가 상승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줄었음에도 실세금리가 하락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가 공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최대폭으로 오른 것이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추이
출처: 블룸버그



다우지수 추이
출처: 블룸버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2% 올랐다. 근원 CPI의 1년 상승폭은 1.8%를 기록했다.

마켓워치는 연준이 국채금리 하락과 관련해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을 펴기도 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이후에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채권 투자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옐런 의장은 이날 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석해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에서 한참 벗어났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라고 말해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몸집 줄인 증권사 3분기 만에 흑자 전환

1분기 당기순이익 3551억
61개 회사 중 48곳 흑자
인원·지점 감축 비용절감
판매관리비 1470억 줄여

증권회사 수익성 추이 단위: 억원 ※ROE: 해당기간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평잔

구분	2013년1~3월	4~6월	7~9월	10~12월(A)	2014년1분기(B)	증감(B-A)	증감률
당기순이익	4461	1192	△233	△2828	3551	6379	흑자전환
ROE	1.1%	0.3%	△0.1%	△0.7%	0.8%	0.5%p	—

올해 1분기 증권사들이 3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1분기(1~3월) 증권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55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379억원 증가했다.

이는 자기매매이익 증가, 판매관리비 감소 및 수탁수수료 수익증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6379억원 증가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자기매매이익은 금리 안정화에 따른 채권 관련 이익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1850억원 증가했다. 수탁수수료도 주식거래대금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며 364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원 및 지점감축 등 증권회사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판매관리비는 147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리 안정화에 따른 채권관련 이익 증가와 지점·인력 감축에 따른 판매관리비 감소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늘었다"고 말했다.

회사별로는 전체 증권회사(61사) 중 48개 증권사가 흑자(4123억원)를 시현한 반면, 13개사는 적자(-572억원)가 발생했다.

흑자회사는 전분기 대비 15개사 증가하고, 적자회사는 16개사 감소하는 등 실적이 개선됐다. 적자회사 중 국내사는 7개사, 외국사는 6개사다. 이 가운데 5개사는 지난해 이후로 매분기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재무건선성은 소폭 하락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증권회사의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470.9%로 지난해 12월 말(476.3%)에 비해 5.4%p 감소했다.

채권보유 규모 확대에 따른 금리 관련 위험액 증가 등으로 총위험액이 1431억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13개사의 평균 NCR는 407.0%로, 지도비율(150%)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미정 기자 lmj@

효율경영 나선 우리투자증권 20개 점포 통합

우리투자증권은 점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국 17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등 총 20개 점포를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점 통합의 주요 내용은 WM사업부 100개 지점 및 4개 영업소를 83개 지점, 1개 영업소로 재편해 점포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점 통합은 6월 16일에서 23일까지 이뤄지며, 인근 주요 점포로 통합돼 고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예정인 점포는 이천, 하남, 수원, 화정역, 여수, 북광주, 남울산, 수영, 성남, 은평, 부천중동, 익산, 서산, 상인동, 양산, 인동, 마산 등 17개 점포이며, 반포영업소, 송파영업소, PB강북영업소 등 3개 영업소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지점 통합의 핵심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점포로 영업력을 재배치하고, 점포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증권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해 적극적인 변화로 업계를 선도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점통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외국인 '입맛' 따라… 시총 순위 오르락내리락

1·2위 삼성전자·현대차 제외
상위종목 순위 변동 잦아

올 들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의 순위 다툼이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에 따라 시총 순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1위)와 현대차(2위), 삼성생명(10위)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종목의 시총 순위가 모두 뒤바뀌는 등 3위부터 9위까지 순위 변동이 잦았다.

특히 네이버와 SK하이닉스의 시총 순위 다툼이 치열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시총 순위는 3위로 7위인 NAVER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와 NAVER는 시총 4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라인'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에 나서면서 NAVER가 지난 3월 5일 시총 4위까지 치솟았던 것. 반면 SK하이닉스의 경우 D램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이 연일 '팔자'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당시 NAVER와 SK하이닉스의 시총 차이는 67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 역전되는 모습이었다. 외국인의 관심이 다시 SK하이닉스로 쏠리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 지난해 말 42%대에 머물던 외국인 비중은 15일 현재 47.40%까지 확대됐다.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시총 5위까지 떨어졌던 SK하이닉스는 시총 3위를 기록 중이다.

한국전력도 외국인의 '러브콜'에 3월 9위까지 밀렸던 시총 순위가 6위까지 회복됐다. 외국인들은 이달 한국전력을 1771억원어치 사들였다. 문선영 기자 moon@

시가총액 순위
단위: 원(2014년 5월 15일 기준)

순위	종목명	현재가	시가총액
1	삼성전자	1,410,000	2,076,916
2	현대차	239,500	527,561
3	SK하이닉스	42,000	298,284
4	현대모비스	303,000	294,952
5	POSCO	310,000	270,280
6	한국전력	41,500	266,415
7	NAVER	762,000	251,178
8	기아차	59,100	239,570
9	신한지주	48,000	227,616
10	삼성생명	99,800	199,600

호텔신라·파라다이스, MSCI 지수 편입

현대증권·NHN엔터는 제외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가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에 편입됐다.

14일(현지시간) 세계적 주가지수 업체 MSCI는 한국 지수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등 2개 종목을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MSCI는 현대증권, NHN엔터테인먼트를 MSCI 한국 지수에서 제외했다.

이 외에도 MSCI는 미국 지수에 트위터·아메리칸항공(AA) 등 11개 종목을, 중국 지수에 광다(光大·에버브라이트)은행 등 4개 종목을 각각 추가했다.

이번 조정으로 해당 종목들은 MSCI 지수를 운용기준(벤치마크)으로 하는 각종 지수펀드·상장지수펀드(ETF)의 보유 대상이 된다. 문선영 기자 moon@

당신의 잠재된 탁월함을 깨우는 열쇠

멈출 수 없는 산만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핵심에 집중할 것인가?

포커스
focus

대니얼 골먼 지음 | 박세연 옮김 | 리더스북
값 18,000원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이 달라진다
우리 삶을 탁월하게 만드는 숨겨진 비밀, 집중력

넘쳐나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커넥팅하는 셀 수 없이 다양한 매체와 기기를 통해 우리는 네트워크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 의미 있는 정보인지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복잡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고립감을 느낀다. 이는 세상이 너무 크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반면, 우리의 주의력을 흩트리는 요인은 더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때야말로 주의력을 냉철하게 연마해야 하며, 정말 중요한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대니얼 골먼은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EQ 감성지능〉의 저자 대니얼 골먼 최신작

문의 : 02-3670-1544

가능성 1퍼센트를 승리로 만드는 전술의 힘!

세상의 모든 혁신은 전쟁에서 탄생했다

임용한 지음 | 교보문고(단행본) | 값 14,000원



"창의와 혁신은 현대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짐이 아니다.
유사 이래 전과를 남긴 명장들의 비결은 모두 창의와 혁신이었다."

병력의 압도적인 차이가 있을 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은 한쪽에 의한 일방적 학살이다. 서로 상대의 전력이 우리와 비슷하다거나 높다고 생각할 때, 혹은 우리가 상대보다 전력에서 열세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약점이 보이거나 우리에게 필승 전략이 있을 때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승리는 단지 1%의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전쟁사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사실 전쟁의 역사는 직관, 통찰, 창의의 역사다. 찰나의 순간에 내린 결정이 1%의 가능성을 승리나 실패로 만드는 치열한 싸움이다. 그래서 전체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역사에 승리자로 남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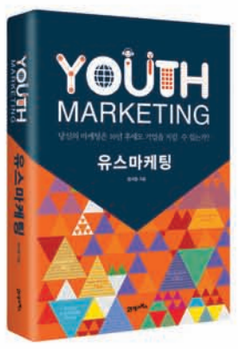
SERI 추천도서 〈세상의 모든 전략은 전쟁에서 탄생했다〉의 후속작!
더 흥미진진하고 치밀하게 분석한 24편의 전쟁 속에서 찾은 '혁신'의 키워드

문의 : 02-3156-3825

당신의 마케팅은 10년 후에도 기업을 지킬 수 있는가?

유스마케팅
YOUTH MARKETING

엄서영 지음 | 21세기북스 | 값 28,000원



대기업의 마케팅이 궁금한 당신에게!

현대자동차에는 매우 독특한 부서가 있다. 그 이름은 '유스마케팅팀'이다. 이 팀은 회사의 현재 판매와는 상관없는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믿는다. 대기업의 마케팅이 판매와 상관없다는 말은 모순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하나의 키워드를 이해하면 비밀이 풀린다. 『유스마케팅』은 이런 기업들을 위한 책이다. 국내에서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유스마케팅'의 정체를 밝히고 어떻게 도입해서 추진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앞서나간 기업들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해서 쉽게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을 통해 아직은 생소하지만, 기업이 반드시 진입해야 할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앞서나간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홈플러스의 기업 마케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유스마케팅'에 주목하라

문의 : 031-955-2400

제 23차 경제경영 연합광고 캠페인 ◉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한푼이 아쉬운데'… 동국제강, 유증 360억 증발

주가하락에 규모 2200억→1800억… 1분기 순손실 등 추가하락 우려도

동국제강의 유상증자 규모가 주가하락으로 360억원 가량 줄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국제강의 1차 신주 예정발행가액이 6690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4월 유상증자 발표 당시 예정발행가액은 8020원이었으나 그간 주가 하락에 따라 6690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규모도 기존 2165억4000만원에서 1806억3000만원으로 357억7000만원 줄게 됐다.

동국제강은 지난 4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165억4000만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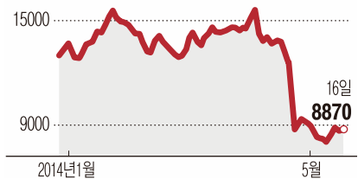
동국제강은 지난 2012년 연결기준 23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1184억원의 순손실을 나타냈다. 특히 주력사업인 후판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후판 부문은 수요처인 조선업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및 국내 후판 생산능력 증가에 따른 판가 하락세 지속, 원재료인 슬래브 전량 외부조달에 따른 경쟁사(포스코, 현대제철) 대비 낮은 원가경쟁력, 현대중공업계열 후판수요의 현대제철 전환에 따른 판매량 축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수익성 악화와 국내외 대규모 투자부담 등으로 금융비용은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동국제강의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5조2000원이다. 부채비율은 247.85%, 차입금의존도는 57.23%를 나타내고 있다.



동국제강 주가 추이 단위: 원



지난해 말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3조2905억원이다. 이 가운데 단기차입금은 1조4800억으로 전체 차입금의 45%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이 55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만기를 맞은 회사채 3000억원은 자체 보유현금으로 갚았다. 이번 유상증자는 오는 9월23일 만기가 도래하는 2500억원의 회사채(공모사채 제76-1회)를 갚기 위한 것이다.

단기차입금에서 회사채 물량을 뺀 9300억원으로 주 차입처가 한국산업은행이다. 회사측은 "대외신인도와 기업규모 등을 판단했을 때 만기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차입금의 경우 2015년 이후로 만기가 분산돼 있어 일시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별도기준 연간 현금창출액(에비타)가 2000억원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연간 자체 영업을 통한 현금창출력에 비해 채무는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다.

아직 유상증자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국제강은 부족분을 사내 유보자금을 통해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주가하락에 따른 유증규모 축소 유려가 남아있다.

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에도 61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올해 대기업 재무구조를 평가한 뒤 동국제강 등 14곳을 부실 우려가 있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동국제강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오는 6월 19일 확정된다.

김미정 기자 mjk@

공시돋보기

서부T&D 최대주주 지분 담보대출

'용산 호텔사업 추진' 승만호 사장 등 1000억 규모 제공

인천의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인 스퀘어원을 운영하는 서부T&D의 최대주주 측이 지분 상당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승만호 서부T&D 사장은 지난 7일 유진투자증권과 보유주식 92만주에 대한 담보대출 연장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한 대출금은 총 95억원으로 금리는 4.9%다.

이 외에도 최대주주인 엠와이에이치의 보유 주식 612만3755주 중 234만4390주를 담보로 629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오진상사 역시 교환사채 계약으로 인한 예탁 등으로 인해 204만여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 '후터스' 등 프랜차이즈, 운수,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엠와이에이치는 승만호 사장이 49.1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오진상사 역시 승만호 사장이 지분 70.90%를 보유하고 있다.

1979년 설립된 서부T&D는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등 전국적으로 30개의 물류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보유한 부동산을 기반으로 복합쇼핑몰 사업에 나섰으며 2012년 10월 스퀘어원을 시작으로 용산호텔개발, 신정동 터미널 부지 복합쇼핑몰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부T&D가 보유한 인천, 용산, 신정동의 3개 부지의 가치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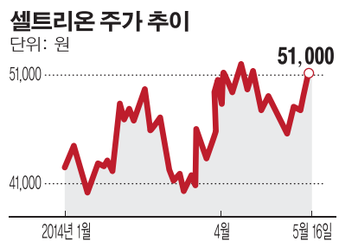
특히 스퀘어원의 경우 영업 1년차를 넘어서면서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상승중이며 용산 호텔관련 인허가가 마무리되고 7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지영 LIG증권 연구원은 "용산호텔 착공만으로도 서부T&D에 대해 1조원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정동도 빠르면 올해 내로 인허가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지금은 부지들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가시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셀트리온 주가 추이
단위: 원



셀트리온 '램시마' 글로벌 진출 확대

셀트리온이 올해안에 일본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램시마(관절염치료제) 판매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램시마는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 개발한 자가면역 관절염치료제다.

16일 셀트리온 관계자는"올해안에 일본과 브라질에서 판매허가가 나올 것"이라며 "램시마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다국적제약사가 독점해왔던 267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항체의약품 시장에 국내제약사가 도전장을 내밀게 된 것이다.

셀트리온은 브라질을 통해 신흥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며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류머티즘 항체의약품 시장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의 발목을 잡고 있던 서정진 회장의 주가조작 수사가 약식기소로 처리되면서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증권사 연구원은 "약식기소 후 주식시장에서 매각이나 램시마 사업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하지만 매각이나 판매허가와 같은 호재는 확인 후 투자해도 늦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셧다웃 쇼크' 게임사, 재무개선 부팅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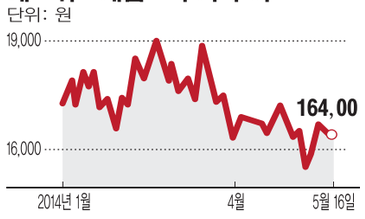
네오위즈 BW 만기전 취득
엠게임 25억 BW 조기상환

게임사들이 잇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만기 전 취득에 나섰다.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전일 2011년 발행한 200억원 규모의 BW에 대해 조기매입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해 202억9369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장외매수했다. BW 취득 자금은 내부자금으로 마련했으며 회수한 사채권은 소각할 예정이다. 신구인수권은 유지된다.

엠게임 또한 같은 날 지난 2012년 5월 발행한 25억원 규모의 BW를 취득했다. 엠게임은 사채인수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만기인 2017년 5월보다 3년 빠르게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며 내부 보유자금으로 사채의 권면총액과 이자를 합한 26억6891억원을 지급했다.

네오위즈게임즈 주가 추이
단위: 원



네오위즈게임즈와 엠게임은 이번 BW 만기 전 취득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부채비율을 2012년 127.5%에서 지난해 71.3%까지 낮췄으며 올해 1분기에는 63.2%까지 끌어내리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엠게임 역시 지난해 부채비율이 681.5%까지 치솟았으나 올해 들어 452.4%로 낮아졌다.

BW 발행 시 분리된 신주인수권은 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의 경우 취득한 BW 워런트의 행사가격은 주당 3만3016원이다. 15일 현재 네오위즈게임즈의 주가는 1만6400원으로 2배를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이를 취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엠게임의 경우 주당 취득 가격은 3724원으로 15일 현재 주가 4580원보다 856원 저렴하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신주인수권은 BW발행 초기 손승철 엠게임 회장과 김판주 사업본부장이 매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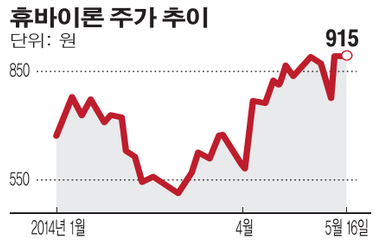
휴바이론, 적대적 M&A 노출되나

엘앤케이글로벌 이도헌 대표
보유목적 '경영참여'로 변경

한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상장사 휴바이론 경영 참여를 선언해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휴바이론 최대주주 측 지분이 20%가 채 안 돼 이 개인투자자가 향후 추가로 지분 매입에 나설 경우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해운운수 알선업체인 엘앤케이글로벌 이도헌 대표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휴바이론 지분 5.90%(103만4194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규 보고했다. 이 대표가 56만4626주(지분율 3.22%)를, 그 특수관계인들인 엘앤케이글로벌이 13만3333주(0.76%)를, 이장헌씨가 17만1010주(0.97%)를, 강윤자씨가 8만3458주(0.48%)를, 김은영씨가 8만1767주(0.4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휴바이론 주가 추이
단위: 원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대표 측이 휴바이론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규 보고하면서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양 측간의 지분 차이가 꽤 나고는 있지만, 이 대표 측이 경영 참여를 선언한 만큼 향후 추가로 지분 매입에 나설 경우 적대적 M&A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인효 기자 kangih@

신용의 상징 - 버들표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필 : 1248-0100

피로가 몰려온다면...
삐콤씨로
영양부터 챙기자!



내일을 바꾸는 온가족 영양제
삐콤·씨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쉽게 피로해져서 걱정인가요? 몸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면 지치고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두 알 씩, 몸에 필요한 비타민 B와 C에 항산화성분까지 채운 삐콤씨로 영양균형도 잡고 피로도 잡으세요.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 (수신자 요금부담)

삼성 청소기 모션싱크
미세먼지 배출 제로에 도전하다

아세요? 청소기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을 99.999% 차단하는 모션싱크라면
청소는 더 쾌적한 드라이빙이 됩니다


VC33F80LNAF/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청소, 즐거운 드라이빙이 되다!
삼성청소기 모션싱크

- **미세먼지 배출 차단** | 7단계 청정 클린 시스템으로 미세먼지 배출 99.999% 차단
  * 독일 SLG 최고 등급 인증, 흡입된 물질에 한함
- **모션싱크 디자인** | 민첩한 회전성, 뛰어난 안정성, 유연한 이동성으로 자유롭게
- **디지털 인버터 모터** | 10년 보증으로 안심하고 오래오래, 에너지는 더 효율적으로
  * 적용 모델에 한함

삼성전자 S' 골드러시 **모션싱크 구매 고객 감사 대축제** (5/1~5/31) 모션싱크 구입 시 교체형 HEPA 필트레이션 제공

* 본 행사는 제품 정보 등록 고객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amsung.com/sec)

삼성전자 SAMSUNG